

꿈틀꽃씨

8번째 이야기





꿈틀꽃씨

♥ 8번째 이야기 ♥

C O N T E N T S

Dreamseeds Story _ 2021 Vol. 8

1	인사코너 p.4
2	보고코너 p.11
3	홍보코너 p.24
4	소개코너 p.28
5	감정코너 p.36
6	마음코너 p.44
7	나눔코너 p.64



1. 인사코너

꿈틀꽃씨를 사랑하는 분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COVID-19 상황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꿈틀꽃씨는 COVID-19 으로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꿈틀꽃씨 심터를 잠시 축소 운영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봉사자 선생님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는 꿈틀꽃씨를 사랑하는 분들의 소식을 전하여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을 통해 마음로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내용을 담아보았으니 서로의 근황에 즐거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한, 소식지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한 나날을 응원합니다.



01 |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김강현

1 소개

9세, 꿈틀꽃씨 처음 열린 날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근황 소개

강현이는 9살이 되면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꿈만 같았던, 늘 꿈꾸었던 일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기! 강현이도 학교에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교실에 가면 강현이 시선이 선생님만 쫓아서 가끔 엄마인 제가 서운할 정도랍니다. 코로나 19로 자주 등교할 수는 없지만 가끔이라도 학교에 갈 수 있어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현이도 매일매일 학교 가기를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3 꿈틀꽃씨에 편지

꿈틀꽃씨가 처음 열릴 때 좋았던 마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외래를 가게 되면 진료 중간 중간 비는 시간 동안 아이와 갈 곳이 없어 병원 안을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아이 밥 먹일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진료대기실 앞에서 밥을 먹었던 적도 많았는데(강현이는 위루관을 가지고 있어요), 꿈틀꽃씨 심터가 열리면서 아이와 함께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 누구 눈치 안 보고 밥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아요~ 꿈틀꽃씨는 ^^ 그리고 꿈틀꽃씨와 함께 한 기억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악치료랍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을 꿈틀꽃씨와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꿈틀꽃씨의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최은수

1 소개

만 12세

2 근황 소개

은수는 올해 만으로 12살이고 2019년 초부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꿈틀꽃씨 심터에는 외래 진료가 있을 때 잠시 들러서 쉬곤 하는데, 쿠키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직접 만든 쿠키를 선생님들에게 나누곤 했습니다.

3 서울대학교병원에 보낸 쿠키

2021년도에 특별한 소식으로는, 한국메이크어위시 재단을 통해 "제 소원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누어 주는 것이예요!"라는 소원을 진행한 것이예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실 선별진료소 선생님들, 코로나 관련 병동 선생님들에게 쿠키를 전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은수의 예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역시 마음이 담긴 쿠키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의료진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큰 힘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예쁜 마음이 소원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선생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쿠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꿈틀꽃씨 드림 -



김용섭

1 소개

만 25세, 저는 김용섭입니다. 오랜 병원생활, 골수이식을 받고 폐 속주로 치료받고 있어요.

2 근황 소개

한 해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답답하고 지겹고 집에 가고 싶어요.

3 외래나 입원 시 꿈틀꽃씨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힐링이 됩니다. 샘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놀고 고민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4 꿈틀꽃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소년 또는 큰 아이들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ex) 바리스타, 악기배우기 프로그램, 마술 배우기 프로그램 등

5 꿈틀꽃씨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문이지 샘 : 병동에 자주 오세요, 연예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추인실 샘 : 보호자에게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ex) 그라신?
- 조득현 샘 : 아이들이 찾을 때 옆에 있어 주세요.

6 외래나 입원 시 꿈틀꽃씨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꿈틀꽃씨는 나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곳]이다.





02 | 나누미 선생님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김서희

1 소개

저는 꿈틀꽃씨 나누미 11기로 활동했습니다.

2 근황 소개

저는 지금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졸업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연도 올리고, 논문도 쓰며 지내고 있어요!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꿈틀꽃씨에서 만났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쉬운 것 빼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쉽터와 병 등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순간, 종이접기를 하던 순간, 점토로 예쁜 꽃을 만들던 순간 등등 함께해서 진심으로 기뻐고, 또 행복했어요. 친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랬기를 바라요. 친구들이 제게 만들어줬던 작품들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붙어있답니다!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저는 공연예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어린이극에 주로 참여했는데 꿈틀꽃씨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친구들을 초대할게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직접 제가 찾아갈게요. 늘 씩씩한 모습으로 인사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합시다!!



정윤재

1 소개

6, 7기로 활동한 정윤재 나누미입니다.

2 근황 소개

꿈틀꽃씨로 활동할 때는 막내라인에 언니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언제 졸업하나 싶었는데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지원을 도와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기대했던 미래와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이 나름대로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 번도 안 배워 봤던 영상 일을 하는 게 무척 재밌습니다!!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 19로 꿈틀꽃씨가 운영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친구들이 너무 심심해하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릴 때 저도 서울대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었습니다. 학교도 자주 결석하다 보니 퇴원하고 나서도 적응하지 못해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병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 하지만 친구들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의 아픔과 늘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누군가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가치 있게 변했습니다. 다들 제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너무 건강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즐겁게 일도 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교사의 꿈을 꾸며 교육대학원에 합격했고 진학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든 시간이 언젠가 가치 있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 고마운 서울대어린이병원 친구들! 늘 예상하지 못하는 대로 흘러갔던 일상이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하고, 동화책 읽고, 로봇 놀이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 나고 따뜻한 기억입니다. 좋은 시간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한솔

1 소개

저는 꿈틀꽃씨 나누미 8기로 활동하였습니다.

2 근황 소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스러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선생님은 나쁜 코로나 세균맨 때문에 올 한 해가 정말 지루하게 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올 한 해는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은 꿈틀꽃씨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6개월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값졌고 가슴에 오래 남았는데 선생님이 너희에게 그런 존재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해 남은 날들도 매일이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세균맨이 진정 되면 꼭 한 번 찾아갈게요! 그때 많은 얘기 다시 나누기로~ 그때까지 좋은 생각 예쁜 생각 많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응원하고 또 사랑해요!!



최지영

1 소개

저는 2019년 여름~겨울 12기 나누미로 활동한 최지영입니다!

2 근황 소개

저는 요즘 학업에 몰두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는 꿈틀꽃씨 아이들 덕분에 제 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년까지는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나누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입시를 해서 원하던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여러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꿈틀꽃씨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월요일 오전에 행복을 선물해준 우리 꿈틀꽃씨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항상 병동에 가면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고 선생님~ 하면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던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리네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나면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요. 매일매일이 누구보다 기쁘고 찬란한 하루가 되기를 나누미 선생님이 항상 기도해요! 사랑해요!





이찬기

1 소개

꿈틀꽃씨 6기 최강 수요일 조로 함께했던 팀장 이찬기입니다.

2 근황 소개

저는 요즘 부산 남구 문현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아동, 노인, 장애인 파트를 맡아서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즐겁게 일하고 있고 친절공무원카드도 받으면서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람은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저는 꿈틀꽃씨 봉사활동을 결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결정이었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해맑게 웃던 친구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직도 제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꿈틀꽃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남자 선생님과 놀이를 하기 싫어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저도 거부했지만 계속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니 그다음부터 저를 찾아주었던 기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심취한 모습을 본 아이가 저 선생님은 어른인데 왜 그렇게 귀여워요? 했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친구들은 남과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한 거라고, 남보다 느린 게 아니고 남보다 천천히 가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발달이 조금 느려 학교 끝나고 따로 수업을 들곤 했습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다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그렇지만 항상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천천히 가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저를 원망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편입을 통해 소위 인서울 학교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몇 번 낙방하긴 했지만 당당하게 30대가 돼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틀꽃씨 덕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한나

1 소개

13기 나누미로 합격하여 2020년에 활동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슬픔).

2 근황 소개

코로나19로 수업도, 활동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집에서 강의 듣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답답하다 보니 아침에 공원 산책 다니는 취미,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꿈틀꽃씨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SNS로 올라오는 소식들로 꿈틀꽃씨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다행히 모두 이 시기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처럼 힘차고 건강하게 지내며 꼭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고우리

1 소개

저는 2018년 하반기에 나누미 10기로 활동하였던 고우리입니다.

2 근황 소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구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가끔 재택근무를 하긴 하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구요. 어려운 시기에 꿈틀꽃씨 친구들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2011년에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완치판정은 2015년에 받았고요. 그때 저는 답답했던 병원 생활과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밀려와서 그 시기의 제 자신을 치유해주고 싶어 나누미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저처럼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라면서요. 제가 투병 생활을 했을 때는 꿈틀꽃씨가 없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생긴 것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누미 활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매 순간이 치유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일 수 있을 텐데도 매년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며 미소와 활활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꼭 말해주고 싶은 점이 있어요. 저는 그때가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입시를 함께 준비했던 시기여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자신이 투병 생활로 인해 다른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거나 친구들처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거나 하는 등등 모두요. 이것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점인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 치료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편히 가졌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다들 지금 충분히 잘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예요. 절대 느린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며 탄탄히 다져가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더욱 멋지게 빛날 여러분들을 아껴주며 저 또한 여러분의 선배로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쩌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치료과정이 훗날 바라보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주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서 어른이 되어 저처럼 꿈틀꽃씨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주는 날이 꼭 올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지 말고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하게 조심히 치료 잘 받고 곧 다시 만나요. 그 전에 건강하게 퇴원하면 당연히 더 좋구요! 나누미 선생님들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틀꽃씨 친구들에게 메세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감사드립니다.

배지은

1 소개

저는 2018년 하반기에 나누미 10기로 활동하였던 고우리입니다.

2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꿈틀 친구들 안녕!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생일파티도 하고, 쉼터에서 도미노피자도 만들며 항상 재미있게 놀았던 11기, 12기 나누미 배지은 쌤이에요~ 꿈틀 친구들 모두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보고 싶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선생님은 즐겁게 놀았던 우리들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늘 따스함이 가득하던 쉼터에서 우리들이 함께 있었던, 그날처럼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슬프고 화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재밌는 보드게임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클레이 모형으로 예쁘고 멋진 작품들을 꼭 만들어줄게요! 그때까지 꿈틀 친구들 늘 씩씩하고 밝은 미소 잃지 않길 약속~~~♡





이현지

1 소개

11, 12기 나누미로 활동하였던 이현지입니다.

2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친구들 안녕~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던 10기, 11기 나누미 현지쌤이에요. 쉼터 활동이 잠시 멈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귀여운 친구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쌤은 요즘 졸업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봄의 꽃내음을 맡고, 여름의 더위를 나누고, 가을의 낙엽을 밟고, 겨울의 눈을 구경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며 지내고요. 일론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네요♡ 같이 책 읽고 노래 부르고 자동차로 로봇을 만들고 공순이 소꿉놀이를 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쉼터를 몇 바퀴씩 뛰어다니면서 공룡 놀이를 했던 것도, 예쁜 미소를 가진 공주님 왕자님들의 생일파티를 준비했던 것도 새록새록 기억난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누미 11기를 함께한 지은 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날의 사진을 보내요. 우리 친구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신나는 날도 왠지 속상하고 슬퍼지는 날도 모두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재밌는 장난감 들고 꿈에 찾아갈게요 ^0^ 선생님 잊지 말구, 다시 만나는 날 꼭 반겨주기!!



김도연

1 소개

꿈틀꽃씨 나누미 1기, 2기, 5기로 활동한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2 근황 소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출퇴근 외에는 집콕! 생활 중이에요. 그나마 주말엔 마스크를 꼭 쓰고 공원으로 강아지 산책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찾다가,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블로그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날들을 돌아보면 반성을 하게 되는 날도 있고, 다시 봐도 웃음이 나는 즐거운 날도 있지요.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여전히 가끔은 귀찮고 피곤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일이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지금을, 오늘 하루를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3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꿈틀꽃씨에서 친구들을 만났던 일상이 더욱 그리워요. 장난감을 잔뜩 안고 병동에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설레던 일, 쉼터에서 체육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며 땀을 송골 송골 흘리던 일, 친구들과 만들기도 하고 카드게임도 하면서 하하 호호 신나게 웃던 일들 모두요! 지금은 잠시 나 그리고 가족들과 충전하는 시간을 갖다가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욱 명랑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꿈틀꽃씨를 튀워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로 해요. 친구들 모두 파이팅!



2. 보고코너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꿈틀꽃씨 쉼터/소아완화의료/소아재택의료) 운영 통계를 공유 드립니다.

2020년의 꿈틀꽃씨는 어느정도 채워졌는지 수치로 살펴봐야요. 모두 아쉬웠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그 속에 함께 녹아져있는 환자 및 가족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유심히 살펴주세요. ^^



01 | 꿈틀꽃씨 쉼터 및 병동연결 통계

1 꿈틀꽃씨 쉼터 이용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연인원	600	-	-	-	-	70	196	90	-	-	186	66	1,208
실인원	371	-	-	-	-	56	132	76	-	-	133	51	819

▶ 2020년 2월, COVID-19 상황으로 원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프로그램 잠정중단 및 꿈틀꽃씨 쉼터를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 COVID-19 상황에 따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변화

- 1/28~6/16: 꿈틀꽃씨 쉼터, 봉사자 1:1연결, 그룹 프로그램 운영 잠정 중단(1월 꿈틀꽃씨 병동 연결은 총 84건, 37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6/17~8/17: 월, 수, 금 09:00~17:00 쉼터 운영, 1타임 당 3가족 예약제 진행
- 8/18~10/31: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운영 중단
- 11/1~11/18: 평일 09:00~17:00 쉼터 운영, 1타임 당 3가족 예약제 진행
- 11/19~12/31: 평일 09:00~17:00 쉼터 운영, 1타임 당 1가족 예약제 진행

2 꿈틀꽃씨 병동 연결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병동연결	84	-	-	-	-	-	-	-	-	-	-	-	84
물품배부	-	-	591	577	600	784	687	662	539	587	-	-	5,027

▶ 2020년 꿈틀꽃씨 병동 연결은 1월 총 84건, 37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 COVID-19 상황으로 13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논의하였으며, 이를 대체하여 3월 4일부터 '병동 물품배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 병동 물품배부는 총 5,027건 진행하였으며, 월평균 630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활동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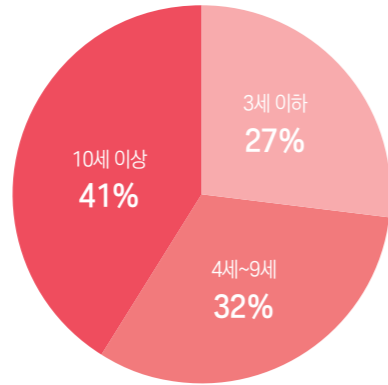


COVID 19 대체 프로그램 '병동물품배부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3. 홍보코너(p.24)]를 참고해주세요.





▶ 연령별 배부 분포



02 | 꿈틀꽃씨 프로그램 통계

꿈틀꽃씨 센터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221건의 프로그램(정기프로그램 12개, 특별 이벤트 4개, COVID-19 대체 프로그램 6개)을 기획 및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COVID-19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대체할만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좋은 의견 주시면 프로그램 기획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꿈틀꽃씨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 정기 프로그램(총 12개)

분류	프로그램명	건수
이벤트 프로그램	동화구연	1
	피자 교실	1
	네일아트	1
	생일파티	1
교육 프로그램	음악치료	7
	과학실험실	1
	위시체육	1
	무용 치료	1
청소년 프로그램	핸드드립 클래스	1
	그림책을 품다	1
보호자 프로그램	힐링아로마	1
	찾아가는 공예학교	1
계		18

-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그램들은 COVID-19 발생하기 전까지 1월 달에 총 1회씩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치료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3명씩 접수받아 2020. 11. 3 ~ 11. 17 까지 일시적으로 진행되어 총 7회기 진행하였으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 2021년에는 프로그램을 다른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 이벤트(총 4개)

분류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진행 건수
특별 이벤트	꿈틀꽃씨 어린이날 이벤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입원 중인 어린이병원친구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스, 과자, 캔디와 함께 “늘 씩씩하고 건강하게”,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등 응원메세지를 함께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1
	연극배우가 읽어주는 사계절 그림동화	종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이벤트로 연극배우 선생님들의 연기와 표정으로 더욱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협동화 그리기	메르세데스-벤츠, 피너츠월드와이드와 함께하는 협동화그리기로, 전세계 어린이병원 친구들도 참여하는 릴레이 이벤트입니다. 꿈틀꽃씨 친구들뿐만 아니라 병원학교, 소아정신과 친구들도 함께하는 즐거운 이벤트였습니다.	1
	꿈틀꽃씨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화갤러리아, 메이크어워시한국지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인 ‘나눔트리’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꿈틀꽃씨 센터에서 미니게임 ‘산타를 이겨라’, 크리스마스 장신구 준비 및 사진촬영, ‘소원트리꾸미기’등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계			7

▶ COVID-19 대체 프로그램(총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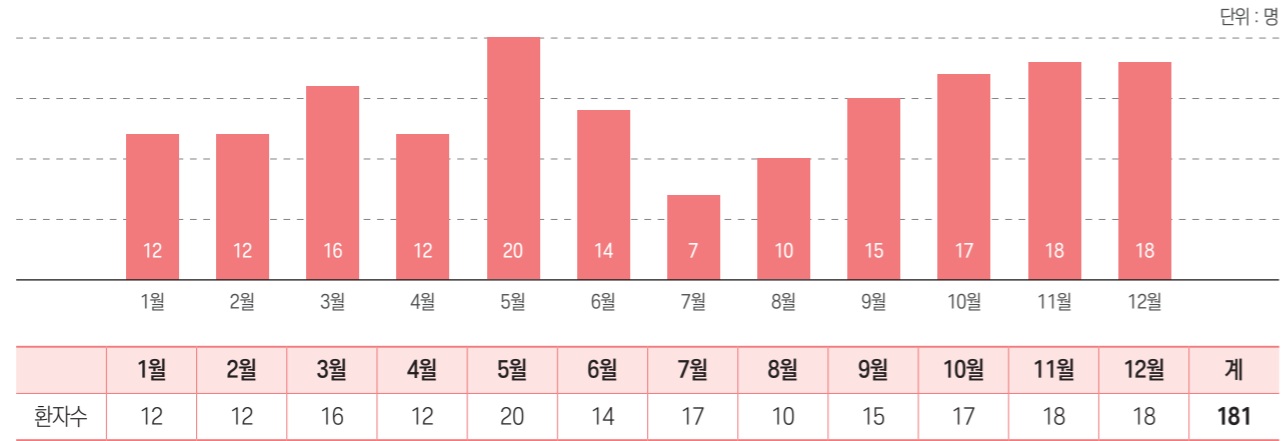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개입건수
병동으로 찾아가는 생일케익 배달	입원 중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를 위한 생일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자로 접수한 친구들에게 케익,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카드 제작을 제공하였습니다.	49
춤추는 나라의 엘리스 ‘춤 선물’	춤추는 나라의 엘리스 무용치료 프로그램 대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춤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꿈틀꽃씨 SNS 계정에서 댓글투표를 통해 선정된 춤을 선물하였습니다.	4
병동 물품배부사업	주 1회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활동 물품 배부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활동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3
PICU 보호자 정서 지원	보호자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중환자실 보호자 정서 지원을 위해 다과 및 후원 물품(담요)을 전달하였습니다.	25
꿈땡(Dream-Think)	현대차정몽구재단 후원으로 소아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로 관련 도서와 진로카드 등을 가정으로 발송하여 다양한 직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89
병동 도서교체	어린이병원 4층~6층 병동 앞 오래된 도서를 교체하고 소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새롭게 교체된 도서 앞에는 노란색 ‘꿈틀꽃씨’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6개 병동
계		196





03 | 소아완화의료팀 의뢰 및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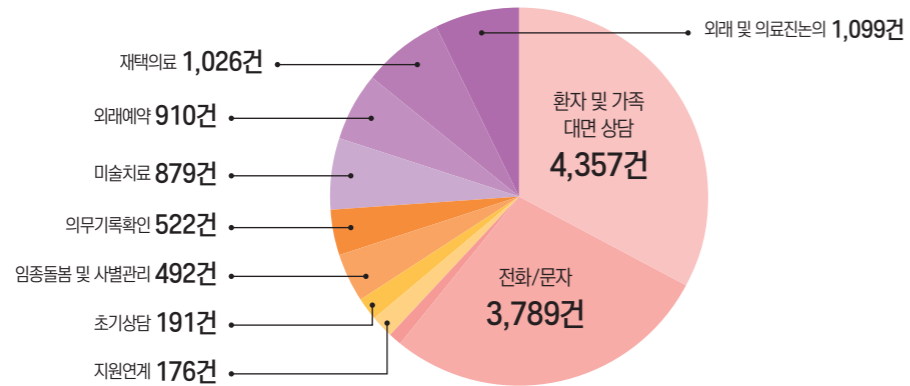
2020년 소아완화의료팀 의뢰 건수



▶ 2020년 개입통계

- 2020년 소아완화의료팀 신규 의뢰 환자는 총 181명이며 월 평균 15명이 의뢰되었습니다.
- 소아완화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 및 가족과 만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팀 개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꿈틀꽃씨 세부 개입현황



- 2020년에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 및 가족께 총 13,610건의 개입을 제공하였으며, 개입 형태로는 환자 및 가족 대면 상담이 4,357건, 전화/문자 3,7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소아완화의료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분들과 소통하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 미술치료

개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미술치료(병동)	32	35	28	27	59	57	68	67	60	55	60	86	634
미술치료(가정)	11	13	5	11	21	42	29	21	28	24	20	20	245
대면 상담/전화	23	11	35	44	21	23	33	19	19	24	30	9	291

- 소아완화의료팀 내에 미술치료 선생님은 총 세분으로, 입원 환자 대상 미술치료와 가정방문 미술치료로 나누어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5명의 친구들에게 총 879건의 미술치료 회기 진행, 291건의 대면 상담/전화 개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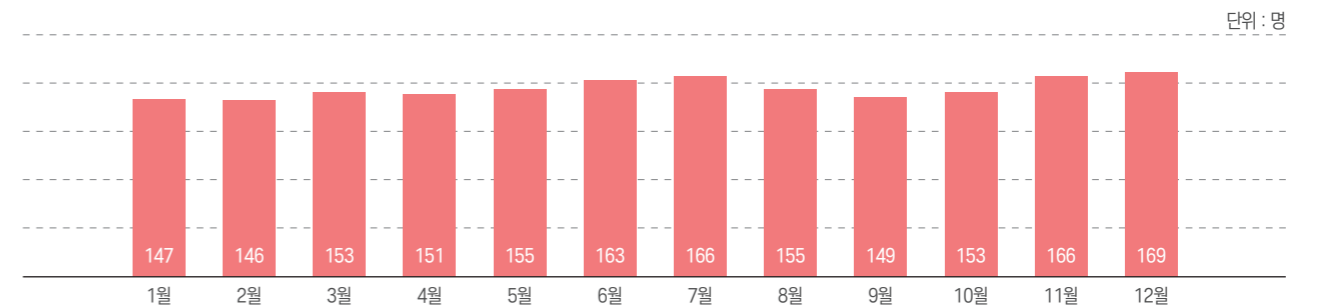
매력적인 미술치료 선생님이 궁금하시죠? 미술치료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소개코너(p.28)]를 참고해주세요.

05 | 중증소아재택의료 의뢰 및 방문통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규의뢰 환자	7	4	3	1	3	4	5	3	3	2	2	5	45

- 꿈틀꽃씨에서 중증소아재택의료 업무를 함께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선생님, 작업치료사 선생님 덕분에 가정에서의 환자 및 가족의 돌봄을 함께 살필 수 있어 감사한데요, 2020년에는 월평균 3명의 환자를 신규 의뢰받아 총 45명이 신규등록되었고 총 110명에게 재택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방문 건수는 총 1,873건으로 직종별 개입(방문)회수는 의사 81건, 간호사 2인 1,004건, 물리치료사 703건, 작업(연하)치료사 85건입니다.
- 중증소아재택의료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 7일, 현재까지 총 142명 등록에 32명 퇴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사업 운영 중입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월별 방문 현황



- 중증소아재택의료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수가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를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 중,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편도 이동거리 30 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입니다.
-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02-2072-4267 으로 문의해주세요.

06 | 소아완화의료팀 연구현황

2020년에도 소아완화의료 실무현장에서 발견된 주제를 토대로 학술적 활동을 실시하였고 총 5건의 연구를 게재하였습니다. 소아완화의료 및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dreamseeds.co.kr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으니 내용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쉽게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dreamseeds.co.kr -> 정보 -> 자료 -> 발간자료 -> No. 10 - 14]

1 Kim, C. H., Song, I. G., Lee, J. Y., Lim, N. G., Shin, H. Y., & Kim, M. S. (2020).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life-limiting conditions: Exploring palliative care need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Scientific Reports, 10(1), 1-10.



- 2 Yu, J., Song, I. G., Kim, C. H., Moon, Y. J., Shin, H. Y., & Kim, M. S. (2020). Perceptions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among Physicians Who Care for Pediatric Pati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23(3), 346-352.
- 3 문이지, & 엄명용. (2020).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와 부모의 경험 연구: 꿈틀꽃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351-391.
- 4 Song, I. G., Kang, S. H., Kim, M. S., Kim, C. H., Moon, Y. J., & Lee, J. (2020). Differences in perspectives of pediatricians on advance care planning: a cross-sectional survey. *BMC palliative care*, 19(1), 1-9.
- 5 Moon, Y. J., Lee, J., Choo, I. S., Kang, S. H., Kim, C. H., & Song, I. G. (202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 Care Planning Workbook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Adolescent Patients: A Pilot Tes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3(4), 212-227.

07 | 2020년 꿈틀꽃씨 쉼터 이용의견 조사

꿈틀꽃씨 쉼터는 2015년 4월 개소 후 매년 1회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특수 상황(COVID-19)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대로 꿈틀꽃씨 쉼터 운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이에, 꿈틀꽃씨 쉼터를 찾아주시고 사용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꿈틀꽃씨 쉼터 이용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의견 조사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54건 접수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꿈틀꽃씨 쉼터

- 1 꿈틀꽃씨 쉼터에 처음 방문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병원 내 홍보 게시글	60	35%
지나가다 우연히 방문	38	22%
지인 소개	28	16%
병원 의료진 소개	25	15%
소아완화의료팀 직원 소개	17	10%
기타	2	1%

- 2 꿈틀꽃씨 쉼터에는 주로 언제 방문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외래(낮병동 포함) 시	117	55%
입원 시	83	39%
쉼터 프로그램 시	11	5%
기타	2	1%

- 3 꿈틀꽃씨 쉼터 소식을 주로 어떻게 접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문자	128	61.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0	14.4%
꿈틀꽃씨 홈페이지	25	12%
병원 및 병동 내 게시판	20	9.6%
병원 홈페이지	4	1.9%
다른 환자 보호자	1	0.5%

- 4 꿈틀꽃씨 쉼터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문자	128	45%
병원 및 병동 내 게시글	58	2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49	17%
꿈틀꽃씨 홈페이지	27	10%
병원 홈페이지	18	6%
기타	2	1%

- 5 꿈틀꽃씨 쉼터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쉼터 내 사용가능 장난감 및 만들기 용품에 대한 안내	96	36.8%
쉼터 이용	72	27.6%
쉼터 예약 방법	63	24.1%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방법	29	11.1%
기타	1	0.4%

- 6 꿈틀꽃씨 쉼터에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건수(건)	비율(%)
6개월-1년마다	53	34.9%
2-3개월 마다	51	33.6%
월 1회-2회	30	19.7%
주 1-2회	11	7.2%
이용한 적 없음	6	3.9%
주 3회 이상	1	0.7%

- 7 꿈틀꽃씨 쉼터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쉼터 장난감 및 도서 이용	109	40.4%
외래 대기 공간	94	34.8%
점심식사(투브 및 위관영양 포함)	35	13.0%
쉼터 의료기기 사용(석션, 배터리 충전, 풀대 등)	26	9.6%
봉사자 선생님과의 놀이 및 학습	4	1.5%
기타	2	0.7%

- 8 꿈틀꽃씨 쉼터 예약 시 주로 어떻게 예약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전화	87	42%
방문접수	73	35%
어플리케이션	32	15%
홈페이지	16	8%

- 9 꿈틀꽃씨 쉼터 예약 시 주로 어떻게 예약하시나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매우 만족	84	55%
만족	58	38%
보통	11	7%

- 9-1 꿈틀꽃씨 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스러우신 부분을 알려주세요. **서술형**

외래 진료 대기 및 휴식 제공 (36건)

- 외래 대기 중에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석션과 기계충전까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서 병원 방문 시 부담이 줄어들어요.
- 지방에서 다녀서 대기시간 쉴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 외래 대기시간에 병원 내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꿈틀꽃씨에서 시간을 보내면 엄마도 아이도 스트레스 없이, 감염위험 덜 느끼며 대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및 이벤트 (27건)

-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병실에 아이들이 지고 놀 수 있는 물품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감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에게 병원에서 유일하게 맘껏 웃을 수 있는 꿈의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 자원봉사자 1:1 나눔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며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 아이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 및 봉사자의 응대 (24건)

-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시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같이 온 형제도 이용 가능하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응대를 잘 해주십니다.

다양한 장난감 및 물품 (13건)

- 장난감 및 만들기가 있어 새로운 걸 접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장난감이 많고 예약제인 점이 좋습니다.
- 비치된 도서 및 장난감으로 환자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 (10건)

- 병원 가면 무섭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잠깐 쉬고 가는 기억이라도 따뜻할 수 있길 바라며 부모로서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 꿈틀꽃씨 덕분에 아이가 병원 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 간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좋은 기억을 안고 귀가합니다.





9-2 꿈틀꽃씨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서술형

센터 공간 (20건)

- 센터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 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센터 내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을 마련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현재 센터 내 파티션을 마련하여 상담 및 처치 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이용안내가 되어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 신규 이용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꿈틀꽃씨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센터 내 게시판 부착하고 말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소모품 이용 (22건)

- 1:1 나누미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2021년 꿈틀꽃씨는 COVID-19를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만족도에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센터 이용 및 예약 (8건)

- 시간대 이용자 제한이 있어 아쉽습니다.
-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 꿈틀꽃씨는 보다 안전한 센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팀 전체 논의 후 예약 수 및 이용 가능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2021. 2.15(월)부터 한 시간에 한 가족씩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하루 최대 4가족 이용가능 범위에서 하루 최대 7가족 이용가능 범위로 조건을 변경 및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꿈틀꽃씨 센터 운영 세부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꿈틀꽃씨 홈페이지 및 SNS, 문자 등을 통해 이용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특별 센터 운영 관련★

센터 방역 및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혹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서술형

센터 공간 (8건)

- 장난감이나 도서들이 보호자 손에 의존되는 듯해요. 꼼꼼하게 닦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소독기가 있었으면 해요.
 - 현재 센터 담당자가 한 가족 센터 이용 이후 환기 및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사용 장난감을 한 번 더 소독하고 장난감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여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이용 및 예약 (8건)

- 코로나라고 당연히 폐쇄된 줄 알았어요. 하지 안 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병원 게시판이나 외래 때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 붙여주세요.
- 지금보다 자주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꿈틀꽃씨는 운영과 관련하여 꿈틀꽃씨 센터 앞 포스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운영현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게시판 및 문자의 적극적 활용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소모품 이용 (4건)

- 사용 가능한 물품 범위가 더 넓어져서 다양한 것들을 했음 좋겠고, 만들기 물품은 1인당 1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2개까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다른 종류 만들기 2개까지 가능 등
 - 꿈틀꽃씨 환자 및 보호자분들을 위해 연령 및 물품별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 새로운 물품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구비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1인당 1개 제한에 관련하여서는 꿈틀꽃씨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으로 더욱 많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규칙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려주시고 이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꿈틀꽃씨 프로그램

1 꿈틀꽃씨 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수(건)	비율(%)
있다	112	73.2%
없다	44	28.8%



1-1 꿈틀꽃씨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수(건)	비율(%)
시간이 맞지 않음	33	41%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했음	14	18%
대상 연령에 맞지 않음	13	16%
참여 가능한 컨디션이 아님	10	13%
COVID-19 상황에서 프로그램 참석이 불안함	6	8%
예약의 어려움	2	3%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않음	2	3%

2 꿈틀꽃씨 집단 프로그램 중 참여의향이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해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생일파티	78	15.1%
도미노피자교실	77	14.9%
음악치료	71	13.7%
동화구연	62	12.0%
수요인형극장	39	7.5%
힐링아로마(보호자/청소년)	38	7.3%
네일아트	30	5.8%
SCV과학교실	28	5.4%
찾아가는공예학교(보호자/청소년)	27	5.2%
위시체육	26	5.0%
춤추나라의앨리스(무용치료)	19	3.7%
핸드드립클래스(보호자/청소년)	17	3.3%
기타	6	1.2%

3 ★COVID-19 대체 프로그램 관련★
2020년 COVID-19로 센터 운영 및 병동연결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으로 입원 환자 대상 소모품 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원 기간 중 꿈틀꽃씨 대체 프로그램 '병동 배부 소모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수(건)	비율(%)
있다	51	34%
없다	99	66%

4 병동 소모품배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수(건)	비율(%)
매우 만족	33	51%
만족	19	29%
보통	10	15%
불만족	3	5%

4-1 병동 소모품배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스러우신 부분을 알려주세요.

서술형

선호에 따른 소모품의 제공 (16건)

- 매번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 연령대에 맞는 소모품 준비로 입원 기간 동안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 필요한 손소독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입원 기간 즐거운 취미의 제공 (15건)

- 꿈틀꽃씨를 이용할 수 없어 입원 기간 내 무료한 시간이 많았는데, 꿈틀에서 제공한 클레이 덕분에 저와 아이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입원 시 소모품을 챙겨오기도 번거롭고 아이도 할 게 없어서 지루한데 소모품을 챙겨주셔서 늘 수 있었고 선물 받는 것 같아서 일주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 힘들고 번거로우실 텐데 아이들을 위하여 일일이 병동을 돌고 문자까지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4-2 병동 소모품배부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서술형

소모품의 다양화 및 품질 (12건)

- 입원하고 수술하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소모품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습 책도 좋을 듯합니다.
- 몇몇 소모품들의 품질이 떨어져 아이들이 놀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병동 소모품 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사전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 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배부 방식 (5건)

- 검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부재중 선택지를 주시고 보호자가 전달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꿈틀꽃씨는 보호자 부재 시를 대비하여 '부재중 쪽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혹 쪽지가 분실되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5 꿈틀꽃씨 병동 소모품배부 프로그램 이외에도 '화상회의 시스템', '유튜브' 등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유튜브 '꿈틀꽃씨' 채널 내 놀이 동영상 업로드	59	29%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1:1 나누미 봉사자 연결	45	22%
공모전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36	18%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1:1 프로그램	34	17%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집단 프로그램	28	14%

- 6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주제 및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술형**

만들기 (13건)
예체능 관련 (11건)
키트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5건)
독서 및 학습 (2건)
 →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 보내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기 및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사항

- 1 응답자의 분류

	건수(건)	비율(%)
보호자	148	95%
환자	5	3%
기타	2	1%

- 2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자(또는 자녀)의 성별을 표시해주세요.

	건수(건)	비율(%)
여성	91	58%
남성	67	42%

- 3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자(또는 자녀)의 연령대를 표시해주세요.

	건수(건)	비율(%)
8-12세	60	38%
5-7세	45	28%
2-4세	22	14%
13-18세	19	12%
19세 이상	5	3%
13-24개월	5	3%
1-12개월	2	1%

- 4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자(또는 자녀)의 주 질환군을 표시해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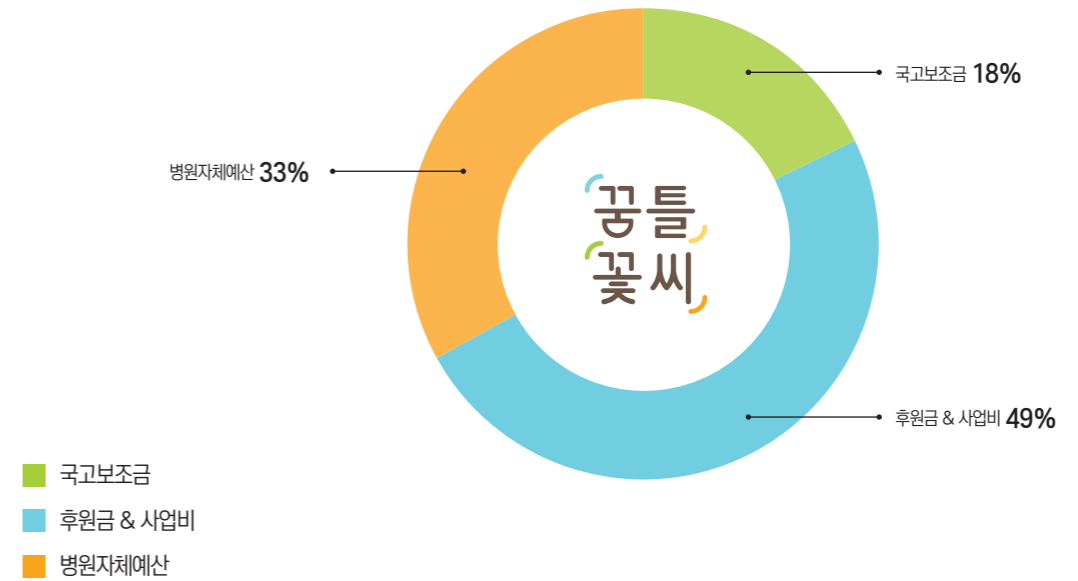
	건수(건)	비율(%)
혈액종양	45	25.1%
신경근육	30	16.8%
기타	28	15.6%
소화기	20	11.2%
심장	17	9.5%
신장	13	7.3%
면역	12	6.7%
내분비	7	3.9%
호흡기	7	3.9%

- 5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자(또는 자녀)의 주 질환군을 표시해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건수(건)	비율(%)
서울	47	30.3%
경기	40	25.8%
부산/경남권	18	11.6%
대전/충청권	16	10.3%
광주/전라권	14	9.0%
대구/경북권	10	6.5%
인천	7	4.5%
제주	2	1.3%
강원	1	0.6%

08 | 2020년 예산 및 지출내역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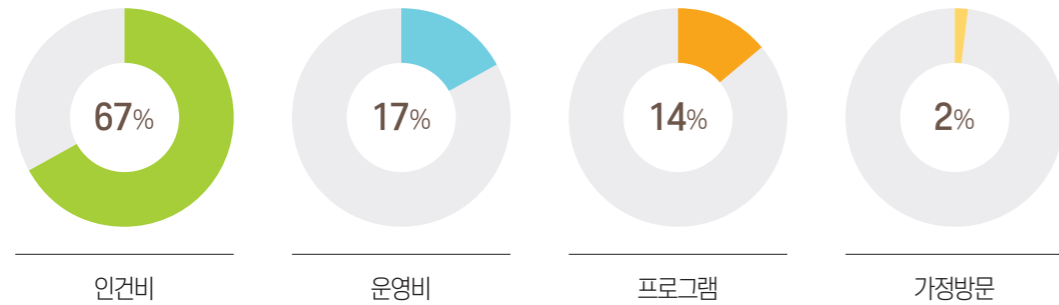
▶ 꿈틀꽃씨 예산 형태





▶ 어린이병원후원회 꿈틀꽃씨 지출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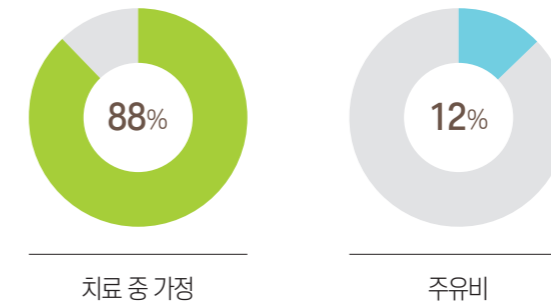
- 2020년 꿈틀꽃씨 지출 : 209,487,826원



영역	금액(원)	구성비	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8,725,000	14%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소모품비, 미술치료 재료비
	프로그램 재료	15,450,833	
	나누미 프로그램	2,149,690	
	미술치료	2,744,978	
운영비	꿈틀꽃씨 운영	8,967,983	17% 회의운영비, 팀원 교육개발비, 추모식, 워크샵, 소진방지, 내부 교육 개발비, 통신료, 심터 공간 유지보수, 공기청정기 대여, 복합기 유지비, 인쇄비 웹프로그램 관리, 통신비, 프로그램 전단, 소식지 제작, 소식지 인쇄, 기타 홍보비 간식비, 교육 준비, 수료식, 식권 연례행사 상담지원, 사별관리, 보호자지원, 교육 자료, 사진 인화 액자, 종이백 및 봉투 출력비
	홍보비	13,112,732	
	봉사자 관리	3,525,030	
	행사	1,433,430	
	환자 및 가족	7,458,100	
가정방문	치료 중 가정	4,122,650	2% 유동 방문 인력 교통비, 환자 지원비 교통비, 납골당 선물, 형제자매 지원비
	사별 가정	574,050	
인건비	141,233,350	67%	사회복지사, 간호사, 미술치료사
계	209,487,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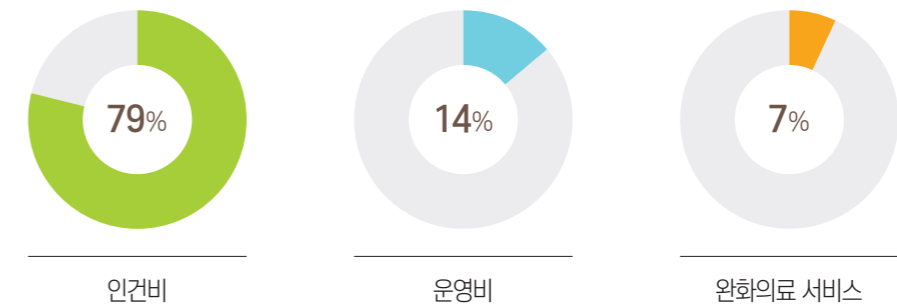
- 2020년 중증소아재택의료팀 지출 : 8,725,860원



영역	금액(원)	구성비	내용
재택의료	치료 중 가정	7,663,750	88% 재택의료 교통비, 차량용 냉온장고 구입비
	주유비	1,062,110	12% 렌트차량 주유비
계	8,725,860		

▶ 국고보조금 지출 세부현황

- 2020년 국고보조금 지출 : 182,000,000원



영역	금액(원)	구성비	내용
완화의료 서비스	이벤트프로그램	2,829,856	7% 크리스마스 및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비 미술치료 재료, 미술치료 강사료, 병동배부물품, 아로마요법 재료 사별가족 도서 및 손수건 구입
	요법프로그램	8,006,004	
	사별가족프로그램	2,500,000	
운영비	사업 관련 물품	8,871,430	14% 사무용품, 심터 및 상담실 환경개선비, 사업관련 도서 구매, 웹프로그램 유지 및 수정 비용 홍보물품 제작, 교육 및 매뉴얼 자료 제작, 마스크트인형 제작, 공모전 진행비, 청소년 tool제작 법정 필수 보수교육비 간호사, 사회복지사 통신비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13,518,070	
	필수인력 교육비	170,000	
	필수인력 통화료	1,037,560	
	팀 운영비	1,067,080	
인건비	144,000,000	79%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건비
계	182,000,000	100%	

3. 홍보코너

2020년도 꿈틀꽃씨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모여주세요.

꿈틀꽃씨를 사랑하는 분들의 소식에 이어, 꿈틀꽃씨도 2020년 한 해 동안 어찌 지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COVID-19으로 꿈틀꽃씨 심지어 '잠시 멈춤'에 동행하였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친구들과 안전하게 만나왔습니다. 꿈틀꽃씨의 조금은 특별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순간을 함께 보시겠어요?



1 | 보드게임 '마음충전소' _ 2020년 1월



소아청소년 환자와 원활한 상담을 위한 보드게임으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내 소아완화의료팀 직원이 이탈리아 학회에 참석하여, 소아청소년 환자와 놀이형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구인 보드게임 'Shop Talk'을 국내 버전으로 개발 및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질문카드를 통해 소아청소년 친구들이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흥미, 고민 등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 COVID-19 대체 프로그램 병동물품배부사업 _ 2020년 3월 4일 ~ 2020년 10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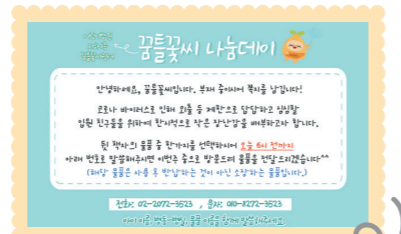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임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었는데, 나누미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은 여전히 매우, 매우 크답니다. 꿈틀꽃씨는 앞으로도 안전한 만남을 최우선 하면서 비대면이라도 봉사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2021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COVID-19 상황으로 나누미 병동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원 친구들이 겪는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난감 및 소모품을 병동으로 배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활동물품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오후에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영유아(3세 이하), 유아-초등학교 저학년(4-9세), 청소년(10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병동배부 물품을 구성하였으며, 1인 당 3000원 대의 소모품 종류로 구성하여 직접 고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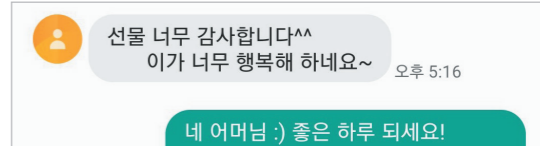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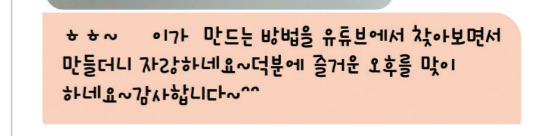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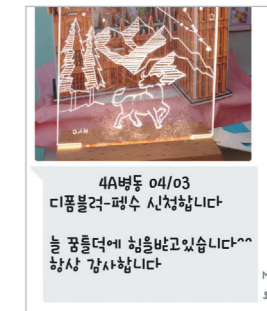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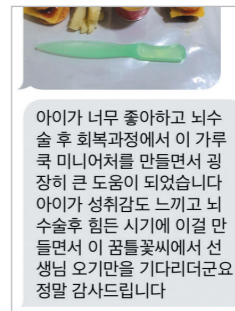


친구들의 질병군 및 컨디션 저하 등의 이유로 소모품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자를 위한 물품 혹은 마사지해줄 수 있는 아로마 오일, 바디로션 등을 추가 구성하여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팀 회의를 통해 논의 후 추가 물품을 보완하였습니다.



▶ 환자 및 보호자 후기

- '기분 좋은 병동물품 나눔에 아이들과 가족 모두 잠시나마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덕분에 꿈틀꽃씨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 본 사업의 물품은 꿈틀꽃씨 후원금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기부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3 | 병동으로 찾아가는 생일케익 이벤트 _ 2020년 3월 17일 ~ 2020년 5월 16일

기존 심터에서 진행되는 '생일파티' 프로그램이 COVID-19로 취소되어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지요. 이를 대체하여 병원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병동으로 찾아가는 생일케익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꿈틀꽃씨가 케이크와 고깔모자, 부모님이 전달해주신 편지를 정성껏 준비하여 친구들의 병상으로 찾아가 작은 생일파티를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첫 공지 이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어 총 8명의 친구와 소중한 생일날을 함께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KBS <거리의 만찬>, 카키오같이가치와 함께하였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꿈틀꽃씨는 환자 및 가족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 '꿈땡'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_ 2020년 6월 ~ 2020년 10월



지난 6월,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꿈땡'을 기획하였습니다. '꿈땡' 프로그램은 Dream과 Think를 합친 단어로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해보고,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89명의 친구들이 진로 관련 도서와 함께 꿈노트, 필기구, 직업카드를 배부 받아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서를 읽고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멋진 피드백 사진도 공유해주었습니다^^ 열심히 치료 중인 친구들의 꿈을 키우는 과정을 꿈틀꽃씨도 함께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진로 탐색 및 건강한 취미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에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 | 2021 꿈틀꽃씨 달력 공모전 _ 2020년 8월 17일 ~ 2020년 9월 30일

2021년 달력공모전을 통해 COVID-19로 인한 심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공모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림 및 문예활동을 통해 건강한 취미의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달력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달력, 무드등, 꿈틀꽃씨 마스크트를 활용한 홍보물품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였던 **가영이**는 본인이 수성한 시계를 꿈틀꽃씨 심터에 비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본인의 작품 시계를 기부하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를 더 많은 친구들이 보고 힘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어 고마워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기분 좋은 만남을 할 수 있어 감사한 꿈틀꽃씨입니다. ^^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 멋진 천가영 친구



6 | 꿈틀꽃씨 사회복지사 브이로그 (#13 사회복지사 문이지 편) _ 2020년 8월 6일

서울대병원 홍보팀과 협업하여 꿈틀꽃씨 사회복지사의 병원에서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가 소개되었습니다. 브이로그에는 꿈틀꽃씨의 문이지 사회복지사와 꿈틀꽃씨 친구들 6명, 꿈틀꽃씨 선생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브이로그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촬영에 흔쾌히 참여해준 친구들, 그리고 영상 편집에 힘써주신 홍보팀 선생님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꿈틀꽃씨를 알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브이로그를 보고 싶은 분들은 서울대병원 Youtube 계정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youtu.be/3MygZlHnMYc>



7 | COVID-19 맞춤형 크리스마스 이벤트 _ 2020년 12월 21일 ~ 2020년 12월 24일



1 나눔트리

한화갤러리아, 메이크어위시한국지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아안화의료팀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원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꿈틀꽃씨 심터 방문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입장하도록 하여 산타할아버지와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2 꿈틀꽃씨 크리스마스 주간

나눔트리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꿈틀꽃씨 심터 공간을 활용하여 미니게임 '산타를 이겨라', 크리스마스 장신구 준비 및 사진촬영, '소원트리꾸미기'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였지요. 그리고, 혹시나 꿈틀꽃씨 심터에 방문하지 못하여 서운함을 느낄 친구들이 없도록 어린이병원 전 병동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8 | 원격으로 진행된 특별한 선물 _ 2020년 6월 25일 ~ 2020년 8월 6일

꿈틀꽃씨 심터 무용 프로그램 '춤추는 나라의 엘리스' 선생님들이 환자 및 가족분들을 위한 춤을 영상으로 준비하여 선물해주셨습니다. 여러 주제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항목을 멋진 안무로 창작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의 정성과 활기찬 기운이 가득 전해지는 선물이었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춤 선물! 감사합니다.

- ▶ 1) 2020년 6월 25일 : 생일파티 https://drive.google.com/file/d/1rUzu8xxL8l4Vka_bR8KE0iCvblLaxA9/view?usp=drivesdk
- ▶ 2) 2020년 7월 2일 : 하쿠나마타타 https://drive.google.com/file/d/1Dmbfg-_lQNYtXJT7i_d8wo3Q2630oya/view?usp=drivesdk
- ▶ 3) 2020년 7월 15일 : 바다이야기 <https://drive.google.com/file/d/1tcqed7Nf1TrnRjD5GOSJlkkjxoTTCq4/view?usp=drivesdk>
- ▶ 4) 2020년 8월 6일 : 비상 https://drive.google.com/file/d/1I0cnLVAuxxV9XSzY9SBn_GwkOJPZA3RY/view?usp=drivesdk

9 | 어린이병원 병동 앞 책장의 변신 _ 2020년 7월 22일

꿈틀꽃씨 심터에 후원 들어온 책들을 깨끗하게 소독하여 어린이병원 병동 앞에 비치되어있는 오래된 서적들과 교체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친구들의 치료 과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도서는 소독 후 비치하였으므로 안전하고 즐겁게 책을 읽어주세요.



10 | 꿈틀꽃씨 관련 기사 _ 2020년 1월 ~ 2020년 12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꿈틀꽃씨, 소아안화의료, 소아재택의료와 관련하여 소개된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1 [Medical News] 소아 안화의료 위한 전문 치료기관 태부족

<http://www.mdon.co.kr/news/article.html?no=25872>

소아청소년은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안화의료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진료기간이 긴 것을 감안해 안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약 44%의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중증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2 [약업신문] 소아청소년 안화의료, 아이와 부모 위한 최선의 '행복'

<http://m.yakup.com/index.html?m=n&mode=view&cat=11&nid=239621>

김민선 교수는 "뺏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대다수의 부모들이 '공중에 떠 있는 기분' 혹은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표현한다"며 "소아청소년 안화의료는 상실감이 큰 만큼 신체적, 사회적, 현실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케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스포츠조선] 서울대병원·넥슨재단, 국내 첫 '중증 아이 하루 14시간 돌보는' 어린이 안화의료센터 건립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76/0003650214?>

서울대학교병원에 국내 최초 소아 단기 돌봄 의료 시설이 생깁니다! '(가칭)서울대학교병원 넥슨 어린이 안화의료센터'는 중증 질환으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와 가족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정부보조금 25억원을 지원받아 병원 도보 5분 거리 2022년 5월 개소 목표로 시설을 건립 예정입니다.



4 [중앙일보] 중증 아이 하루 14시간 돌보느라, 부모는 5시간 폭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2439?>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유현·김민선 교수팀이 중증소아청소년 재택 환자의 보호자 74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이 중 6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모는 하루 평균 14.4시간을 돌보고 5.6시간을 수면하는 등 폭잠 수 없이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중증 소아환자의 간병 부담을 이젠 가정이 아닌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소개코너

꿈틀꽃씨 미술치료, 새롭게 함께하는 분들, 꿈틀꽃씨에 찾아온 좋은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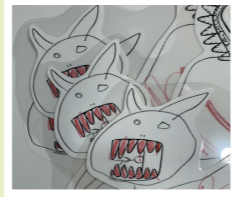
꿈틀꽃씨 미술치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8호 소식지에서는 환자 및 가족분들의 경험을 담아 미술치료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함께하게 된 신규 선생님, 꿈틀꽃씨에 찾아온 좋은 소식들을 함께 소개드려요!!

1 | 꿈틀꽃씨 미술치료



친구의 이름은? : 문태후 입니다.
 성별(연령) : 남(10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뇌종양(Ependymoma)으로 치료 중입니다.

두 명의 천사를 표현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천사, 사망 후 무섭지 않게 해주는 천사) "나중에 죽게 되면 천사가 무섭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라며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눔.



친구의 이름은? : 김준성 입니다.
 성별(연령) : 남(9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골육종(osteosarcoma)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거는 부적 같은거예요.", "이식방에 가지고 들어가면 나쁜 귀신, 나쁜 세균들이 도망가니까 치료 잘 하고 나올 수 있어요."라며 이식방 들어가기 전 함께 만들.



환자어머니
 친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테이삭스병(Tay-sachs disease)으로 치료 중입니다.

"많은 죽음들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으니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제 인생의 모토예요."



환자 형제자매
 친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치료 중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트를 그린 건 OO(환자이름)를 너무 사랑해서예요."

김선주 선생님이 미술치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월부터 꿈틀꽃씨와 함께한 미술치료사 김선주입니다. 저는 꿈틀꽃씨에서 입원 및 외래 환아들을 만나서 미술 작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꿈틀꽃씨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중에 공유해주시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지요?

A. 제가 만났던 친구들과의 시간이 모두 소중한데요, 특히 아이들이 입원한 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 혹은 일상생활에서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치료사와 나누고 미술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술 수업과는 다르게 느긋하다보니 정해진 색,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그리는 모습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Q. 꿈틀꽃씨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보람되시는지요?

A. 매 순간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아이들이 즐겁게 미술작업을 하고, 어머니들도 평소에 아이가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인데 선생님에게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안도하시며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술치료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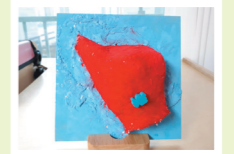


채 / 제목: 상상 인물화
 "평소에는 정해진 색, 선대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해보았어요."

양선아 선생님이 미술치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부터 꿈틀꽃씨와 함께 한 미술치료사 양선아입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받으러 오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찾아가 만나기도 합니다.



Q. 꿈틀꽃씨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중에 공유해주시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지요?

A. 제가 만난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지만, 오늘은 민경이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민경이는 검은 곱슬머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11세 아가씨예요. 저와는 한회기 한회기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 신뢰하고 친밀해지는 재미가 있었던 친구예요.민경이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되면 멀리 놓고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고, 제가 집으로 방문할 때면 작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난주의 작업들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기도 했어요. 주도적으로 색감들을 선택하고, 멋지게 완성되는 작품으로 저와 소통했던 민경이는 지금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어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민경이에게, 또 어머니와 아버님께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소개하는 작품은 민경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 했던 '야광별 액자'와 '나의 손, 석고 뜨기' 작품입니다. 민경이의 센스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Q. 미술상담 하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

A. 만났던 친구들 얼굴을 모두 떠올려 보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심심해 하면서 누워 있다 가도 눈을 반짝이면서 미술작업을 재밌게 하고, 작품을 완성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들 보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완성한 작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작품에 투영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작품 안에서 이루고 기뻐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지요.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생각하는데, 표정과 눈동자로 저와 교감하고, 하나씩 완성되는 작품안에 친구들의 선택으로 표현된 마음들이 아름답게 구현되는 과정은 지켜보는 것으로도 무척 보람되요. 그런 작품들이 부모님과 친구들의 소통의 끈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더 좋기도 하구요.





조득현 선생님이 미술치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사 조득현입니다.



Q. 꿈틀꽃씨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중에 공유해주시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지요?

A. 병동 방문시 신체적 에너지가 다소 떨어져 있던 아이들도 다양한 미술재료로 생각을 표현하거나 병동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가며 활기찬 모습으로 밝은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성이의 하루

입원중인 공간을 꿈과 환상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버님께서 놀이에 함께 동참해주시는 모습에 우성이는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Q. 꿈틀꽃씨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보람되시지요?

A. 아이들이 힘든 치료과정에서 생각과 감정을 말하기 어려워 힘들어할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미술치료사 이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2 | 새로운 팀원을 소개합니다.

2020년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꿈틀꽃씨와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업치료사 정희라 선생님, 미술치료사 김선주 선생님, 사회복지사 박영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



1 정희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Q. 직업 또는 하시는 일

A. 저는 작업치료사입니다.

현재 소아중증환아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및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입원&외래 환자에게 작업치료와 연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환아가 정상발달을 할 수 있게 감각 제공과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 치료를 하며 더 많은 영역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하 치료는 삼킴이 어렵고 그 밖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진 환아에게 훈련하고 적절한 치료적 중재 방법을 교육하여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Q. 어디로 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A.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소아작업치료실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방문치료를 하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근무하지만, 치료실에 들어오시면 저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Q. 꿈틀꽃씨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안녕하세요. 꿈틀꽃씨 친구들~ 작업치료사 정희라 선생님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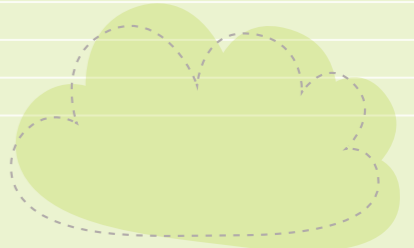
저는 꿈틀꽃씨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의 웃는 얼굴에 마음이 녹고는 해요.

병원 생활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밝은 생각하며 웃는 얼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친구들이 웃는 얼굴 지닐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바람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점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땀겨요~! 2021년에도 파이팅 하고 하루하루 가족과 행복한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Q. 소아재택의료 대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재택치료를 약 6개월 정도 해왔는데 '에이-' 하실 수도 있지만, 친구 한 명 한 명, 보호자 한 명 한 명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재택에서 환아를 치료하고 끝마칠 때 저는 보호자분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와닿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 것 아닌 인사말일지라도 그 한 마디에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환아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저를 신뢰해주는 것에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치료가 종결 난 친구,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 모두 저에게 뜻깊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2 김선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Q. 직업 또는 하시는 일

A.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입원 및 외래 환아를 대상으로 개인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사입니다. 미술치료는 환아가 다양한 미술재료를 통하여 감각을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더불어 환아들이 투병의 과정에서 미술작업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환경적,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어디로 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A.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꿈틀꽃씨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세션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주로 병동에 있으므로 꿈틀꽃씨에 들어오시면 저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거예요~

Q. 꿈틀꽃씨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안녕하세요. 꿈틀꽃씨 친구들~ 미술치료사 김선주 선생님이에요~ 저는 꿈틀꽃씨 친구들을 만나면 미술 작업이 재미있다고 하며 웃는 모습에 에너지를 얻고 병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즐거운 일 등에 대해 다양하게 나누면서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쁘답니다. 꿈틀꽃씨 친구들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구요, 앞으로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소아완화의료 대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저는 현재 꿈틀꽃씨에서는 미술치료를 6개월 정도 진행해왔는데, 짧게 만난 친구들, 꾸준히 만나는 친구들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아이들 이라 기억에 남네요~ 매번 만날 때 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야기해주는 친구, 선생님에게 주려고 이불 속에 감춰둔 젤리를 '짜잔'하고 건네준 친구, 미리 준비해 놓았지만 주는 것이 어색해서 갑작스럽게 건네준 민트 캔디 등 친구들이 치료사의 만남을 기억하고 스스로 어떤 작업을 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에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이가 병원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인데 선생님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와 닿았습니다.



3 박영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Q. 직업 또는 하시는 일

A. 안녕하세요! 저는 꿈틀꽃씨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꿈틀꽃씨가 꿈틀꽃씨를 방문하는 친구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해줄 나누미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 혹은 친구들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기도 해요!

Q. 어디로 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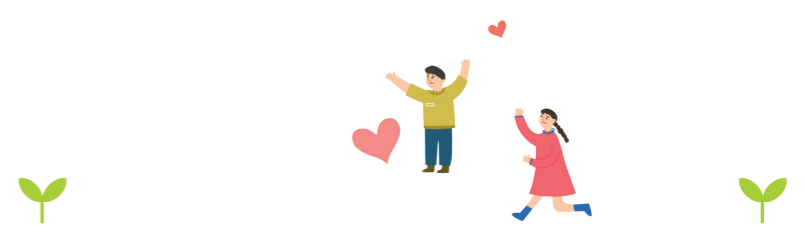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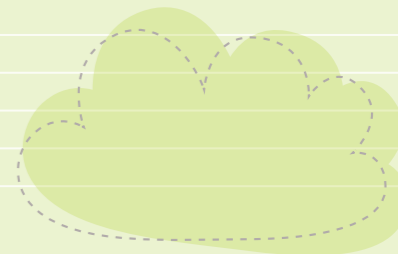
A. 저는 꿈틀꽃씨 입구 옆 카운터에서 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에 있는 꿈틀꽃씨에 오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꿈틀꽃씨에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Q. 꿈틀꽃씨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병원이라는 공간이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무섭고 낯선 공간일 수 있지만, 꿈틀꽃씨를 통해 친구들이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의 재미와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꿈틀꽃씨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주저 말고 언제든지 꿈틀꽃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Q. 꿈틀꽃씨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틀꽃씨의 새 일원이 된 만큼, 꿈틀꽃씨에 방문하는 친구들은 늘 웃는 얼굴로 꿈틀꽃씨를 나설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할 예정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전만큼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친구들이 안전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도록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해볼게요!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 | 2020년 꿈틀꽃씨 선생님들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김민선 교수님과 문이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수상 소식인데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꿈틀꽃씨 환자 및 가족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본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환자 및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꿈틀꽃씨가 되겠습니다.

1 김민선 교수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0년 10월 16일, 소아완화의료팀 전담 교수님인 김민선 교수님이 국내의 소아완화의료 제도화 및 발전에 이바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 문이지 사회복지사의 최우수 논문상 수상

2020년 12월 5일, 소아완화의료팀 전담 사회복지사인 문이지 선생님이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에서 주최한 [re:스펙U] 이벤트에 꿈틀꽃씨 전선호 사회복지사 쌤이 참여하여 당첨된 공인형이에요!
 꿈틀꿈틀 꿈을 담은 꽃씨가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꿈틀꽃씨를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꿈도리 #열일했지 #칭찬해



5. 감정코너

기분 좋은 감정을 가득 채우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기분 좋아지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하루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요. 어려운 치료를 열심히 받다보면 우리 친구들도 기쁨, 슬픔, 행복, 우울,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소아완화의료팀 선생님들은 마음에 그늘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시는지 여쭙어보아 추천받은 글, 그림, 노래, 영화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행복을 충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코너를 제작해보았습니다. 특히, 미술작품은 소아완화의료팀 미술치료사 양선아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셨는데요, 잠시 멈추어 작품을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실 것이예요. ^^



1 |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글

1 박완서의 '세상에 예쁜 것' 에세이집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본 서적은 작가가 한 해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방황하는 시절과 심경을 그려내며, 일상 속의 깨달음과 삶의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세상에 예쁜 것'이라는 제목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새 생명의 힘, 소중한 존재와 순간을 그림처럼 포착하였지요.

“고통스럽던 병자의 얼굴에 잠시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을 보니 잠든 아기의 발바닥이었다. 포대기 끝으로 나온 아기 발바닥의 열 발가락이 “세상에 예쁜 것” 탄성이 나올 만큼, 아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뻐다.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려는 고목나무가 자신의 뿌리 근처에서 몽실몽실 돋는 새싹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목나무는 쓰러지면서도 얼마나 행복할까. ... 아기의 생명력은 임종의 자리에도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세상에 예쁜 것 중-

2 오나리 유코의 '행복한 질문'



사랑스럽고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드는 책 한권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질문'이라는 책은 연인 사이에 오갈만한 사랑스런 대화를 귀엽고 따뜻한 그림과 감각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낸 그림책입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내가 시커먼 곰으로 변한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거야?”

이 뜬금없는 질문에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야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애원하지 않을까? 나를 잡아먹지 마라줘.

그런 다음 아침밥으로 월 먹고 싶은지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꿀이 좋겠지?”

“내가 아기가 되면? ... 고양이가 되면? ... 벌레가 되면?”

아내의 엉뚱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만, 남편은 당황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곰이 되어도, 벌레가 되어도, 심지어 나무가 된다 해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질문 중-

부부가 행복한 질문은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이 펼쳐지는 부부의 집에서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소중한 행복을 같이 하고 있지요. 꿈틀꽃씨 소식지를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고 행복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번 함께 읽어보시는 것 어떨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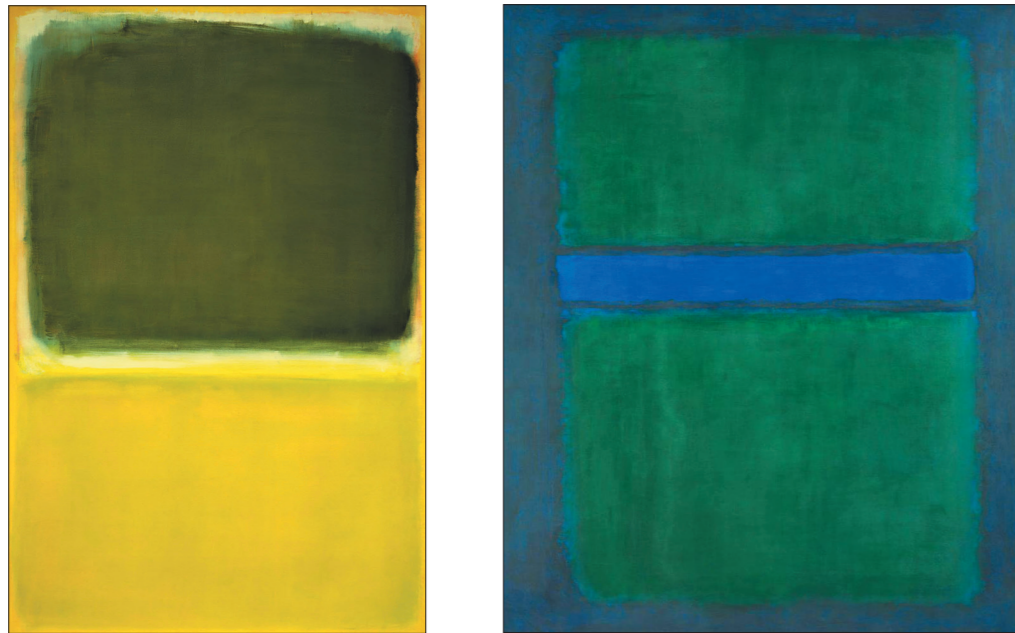




2 | 기분이 좋아지는 미술작품 소개

이 두 작품은 소아완화의료팀 양선아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이 작품들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그린'과 '블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안정감, 차분함, 편안함이 좋았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였다고 하시네요. 작품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힐링 색은 어떤 색일지 마크 로스코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면서 생각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마크 로스코의 그림



러시아 출신 미국화가 마크 로스코의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색면화가 가운데 한명인 마크 로스코는 러시아에서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점점 커지는 나치의 영향력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마크 로스코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지요. 그는 커다랗고 모호한 색면과 불분명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캔버스에 절망부터 환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담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특별한 제목이 없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들은 넘버와 색감 이름으로만 제목이 이루어져 있어서 제목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작품을 본 느낌을 자신만의 제목으로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추상주의 화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도 하죠.

2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열기구’



‘썰매 타기’

모지스 할머니의 유쾌한 시골풍경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는 1860년 미국의 가난한 소작농의 셋째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도 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를 도왔고, 결혼을 하고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삶을 일구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딸 애니를 하늘로 떠나보 낸 후 인 75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림으로 치유하며 승화 시킨 것이죠. 할머니의 작품들은 시골의 목가적이고 유쾌한 삶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을 짓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할머니는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평생을 시골 아낙으로 농사일을 하며 지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무엇보다 어떤 환경 앞에서 '이미 늦었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순간,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가르쳐 준 멋진 할머니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 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모지스 할머니의 말 중-



3 |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 소개

1 '걱정말아요 그대' _ 아티스트 : 이적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 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3 '한숨' _ 아티스트 : 이하이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2 '괜찮아' _ 아티스트 : 김동률



함께 출발한 네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 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 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4 'PARADISE (낙원)' _ 아티스트 : 방탄소년단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네 순간들이 있다면
멈춰서도 괜찮아
이젠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뿜는 모든 호흡은 이미 낙원에



5 '엄마' _ 아티스트 : 강아솔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어머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나는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쉬라 하셨지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에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올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 할 빛만 쌓여가는구나

그 외에도 [‘가을아침’ -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 양희은/ ‘오르막길’ - 정인/ ‘수고했어 오늘도’ - 옥상달빛/ ‘모두 다 꽃이야’ - 김봉곤 훈장과 청학동 국악자매/ ‘Blackbird’ - Beatles]를 함께 들어보세요.



4 | 도움이 되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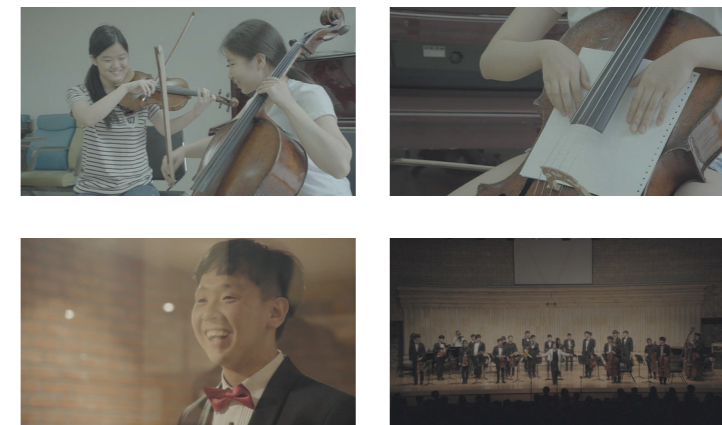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故 류장하 감독의 '뷰티플마인드'



본 영화는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구성된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차이'를 극복하고 기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유쾌한 유머와 영동한 매력의 가득한 기타리스트 환(발달장애), 피아노 페달이 겨우 닿는 10살 어린 소년이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건호(시각장애), 자신의 몸보다 큰 더블베이스를 연주하며 절대 음감과 악보 기억력을 소유한 지연(지체장애, 시각장애), 항상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첼로 전공 민주(시각장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바이올린 전공 수진(시각장애)이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하모니를 통해 여러분도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더디지만 차근차근 성장하는 그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

“삶은 나선형이다. 쳇바퀴 돌 듯 제자리인 것 같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뷰티플마인드 中-



6. 마음코너

하늘로 보내는 편지,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마음 :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이 세상에서 제일로 깊고 짙은 마음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아닐까요? 꿈틀꽃씨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랑과 그리움을 함께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집 막내딸 서은이♡

서은아 서은아, 우리 서은이 잘 지내고 있지? 며칠 전에 서은이 언니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면서 소원 적는 곳에 서은이 이름을 제일 먼저 쓰고는 '서은이, 소은이, 서은이 행복하기'라고 적었는데 언니 소원대로 우리 서은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아마도 엄마, 아빠, 할머니, 언니들 보며 매일매일 웃고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서은이를 생각하니깐 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찢어질 듯 아픈 마음도 그대로,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야.

서은아, 아빠도 서은이처럼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지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란 걸 알기에 덤덤하게 있으려고 해. 아빠가 건강하게 완치되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혹시나 만약에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서은이랑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있어.

아빠가 항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 서은이는 더 아가였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에 서은이가 표현하는걸 엄마가 못 알아채서 힘들게 했을까 봐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파.

오늘따라 정말 우리 서은이가 더 많이 생각난다. 웅알이하던 귀여운 모습도, 웃는 모습도, 세상에서 제일 예뻐던 우리 딸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른다. 서은아, 절대로 다시는 아프지 마.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재밌게 놀고 있어 우리 딸. 사랑해.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김서은이♡

- 서은이 엄마가



꽃피는 봄 3월 어느 날!!! 하루의 아침을 여는 이른 새벽~ 오랜 기다림 속에 큰 거북이를 태몽으로 3.8kg으로 태어난 너와의 만남의 기쁨의 순간도 잠시 아빠와의 만남의 기쁨도 잠시 넌 요란한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단다.

그곳에서 하루를 지나 아침에 너는 다시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넌 그렇게 인연이 되었었지.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과의 기쁜 만남도 잠시였단다.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더구나! 태출도 마르기 전, 네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너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큰 수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빠의 눈과 머리는 온통 까만색 그리고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었지.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라 그러나 힘들게 애를 가졌다고 좋아하던 엄마에게 충격 받지 않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제일 큰 걱정이었던단다. 몸도 성치 않은 엄마에게 별일 없다고 돌려대니 궁금하다며, 너를 낳고 3일 만에 퇴원을 해버렸지.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항상 너의 곁에서 함께 했지. 네가 어른들도 힘들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잘 견디고, 만 2살이 되어서야 걸음을 걸을 때, 아빠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지금도 그때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곤 하지. 지속되는 항암치료에도 진전이 없어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집으로 너를 데리고 올 때 3살이 다 되었는데도 19 kg로 고개도 혼자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널 데리고 오면서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단다. 그 후 항암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더이상 하지 않았는데 기적처럼 넌 완치되어 너의 짧은 삶 중에서 네가 병원 생활을 하지 않은 초등 생활이었지. 중학교 입학의 기쁨으로 교복을 입고 좋아했던 순간도 잠시, 다시 온 아픔의 시련으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보고, 고3이 시작되자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싶으며 하루라도 고등학교에 교복 입고 가보고 싶다고 갔다가 올 때 아빠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었던단다. 병원에서 선생께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할 때 "공부하는 신목고 3학년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빵과 우유를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더구나. 사람을 좋아하는 네가 얼마나 친구들을 보고 싶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빠는 알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방송 교재와 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한다고 앉아있을 때 아빠는 얼마나 안타깝고, 네가 대견했는지 아니?

정숙아! 그동안 수없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자고 나오면 돼요" 하고 늘 웃으면서 들어갔었는데, 너의 마지막 28번째로 들어가는 수술실은 조용했었지. 정숙아! 미안하다. 네가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으면 더 이상 고통 주지 말고 이별을 고향 것을 잘못된 것 같구나. 전날 낮에 심리치료 선생님과 잘 지내고, 저녁에 외출하는 아빠 넥타이도 골라주고, 들어와서는 잘 자라고 인사도 나누었는데, 밤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깨워서 너의 얼굴을 보고 왔으면 더 편히 자라고 그냥 나온 것이 후회된다. 널 깨웠으면 아마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 미안해! 병원에서 40%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너를 또 힘들게 했었던단다. 아빠는 그래도 마지막 말 한마디 아니 눈이라도 맞추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 하고 싶었던단다.

우리 공주도 정말 19년이라는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엄마도 널 살려보겠다고 간을 이식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으나, 뼈까지 전이되고 방법이 없었잖아. 우리 공주 정말 대견하고 강하더구나! 선생님께서 "길어야 2~3개월이니 먹고 싶은 것 많이 먹고, 가고 싶는데 있으면 여행도 다니라."는 말을 할 때, 아빠와 같이 들었는데 전혀 표정도 변하지 않고 아빠를 오히려 위로했었지. "척추는 아빠 수술할 수 없으니 방사선 치료로 하면 되지"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왜 없었겠니? 우리 공주 하루, 하루가 힘이 들었을까? 아빠는 지금도 너의 손길을 느끼고자 네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살려났단다. 혹시, 우리 공주 친구라도 연락이 오면 반겨주려고.

정숙아. 마지막 2~3주 동안 고통이 힘들어서 통증학과 선생님과 새벽에도 문자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더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그랬어! 바보처럼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부모님 걱정될까 봐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지 않은 거니? 돌이켜보니, 정숙아가 아픈 가운데도 그동안 사랑해준 시골의 친가도 다녀오고, 그리고 한 달 전에 돌아간 할아버지까지 모두 만나 이별을 준비했던 거였어? 네가 쓰러지기 3일 전에는 외할아버지 생신 모임에 아프면서도 가야 한다고 같이



이 시간 보내고, 돌이켜보면 너는 하나하나 이별을 준비한 거였어.

사랑하는 정숙아! 불러도 대답 없는 정숙아! 아빠 없는 천국에는... 아프지는 않니? 덩거나 춥지는 않니? 외롭지 않니? 봄이 오면 나뭇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 지어,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건만 아빠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해가 바뀌어도 너의 그리움만 쌓이고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없구나!

- 사랑하는 아빠가

3 손희승 마음별

우리 희승이 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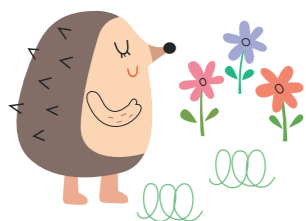
한 달에 한 번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아빠 월급날이 아니라 파주에서 이 추운 날 혼자 잠들고 있는 널 보러 가기 전날이란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잠시나마 볼 수 있어서 행복했었어.

우리가 중국 청도에서 살 때는 아빠가 회사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약 5년 동안 좁은 집에서 3식구가 고생하는 가운데 점점 악화되어가는 희승이 건강을 옆에서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의식과 몸이 쇠약해가지만, 짜증도 많이 안 내고 잘 참아준 희승이가 참으로 고마웠어. 가장 아쉬운 것은 희승이가 천국 가기 전날 함께 교회 주일예배에 가지 못한 것이란다. 파란색 새 차를 타고 엄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아빠 혼자 갔다 온 것이 제일 후회돼. 미안해... 그래도 희승이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을 거라 100% 확신한다.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 엄마를 웃으며 바라보고 있겠지.

희승이가 기도를 해준 덕분에인지 아빠 월급도 오르고, 회사 가까운 넓은 새집으로 이사도 하고 교회 집사님들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떠난 희승이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 희승이에게 다 주지 못한 사랑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엄마에게, 주위 분들에게 그리고 아프고 힘든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단다. 희승이가 천국에서 볼 때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하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며 약속을 하고 있어.

가끔씩 희승이를 생각하면 혼자서 마구 운단다, 보고 싶어서.. 지금도 이 편지 쓰면서도 눈물, 콧물 때문에..(웃음). 2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빠의 아들로서 힘들었지만, 함께 살아준 희승이가 고맙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아프지 않고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희승이도 계속 기도해주고.

- 보고 싶은 우리 아들 희승이에게 아빠가.



4 김지환 마음별

지환에게

여전히 열아홉이라는 숫자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아. 올 지환이 떠나기 20여 일 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젊은이도 열아홉



이었지. 당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이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을 고스란히 물었지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단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는 샌드위치와 오렌지주스를 올려놓기도 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으로 관계자를 처벌하는 법안도 만들어진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세상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위로 삼아야겠지.

아무리 세상이 나아진다 한들 올 지환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 천형이라 여겨질 수 없겠구나.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갔더니 상담을 하던 한의사는 "이제는 아이를 보내줘야 한다."라면서 주문을 외워주더구나.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빠가 마치 주술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잊을 수 없는 올 지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위로받아야 할 일은 아닌데 말이야. 올 지환이 숨 쉴 때마다 엄마가 생각난다고 했던 것처럼 아빠도 숨 쉴 때마다 올 지환이 생각난단다.

올 지환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는구나. 아빠는 2016년을 되돌아해서 사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지 시간의 흐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오십대 후반인데 말이야. 그런데 올 지환이 지금 아빠를 만나면 알아볼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되는구나. 올 지환을 보내고 폭음을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몸무게가 한 달에 1kg씩 늘었다. 그해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최소 12kg이나 찼으나 못 알아본다고 올 지환을 땀 흘려 수만은 없을 거야. 올 지환이 좋아했던 음식을 먹으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려나. 올 지환이 떠올리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잖아.

▶ 초밥: 우리가 성산동에 살 때 가끔 가던 사이코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밥을 포장해 가도 우동만 먹었던 올 지환이었지. 그러다가 홍대 앞 미술학원 '창조의 아침'에 다닐 때 사이코우에 들러 초밥 맛을 알게 되었잖아. 올 지환이 떠난 뒤에도 가끔 그곳에 갔는데, 2년 전에 문을 닫았더라고. 그나마 효자동 초밥은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아 그 맛을 기억하게 하는구나. 가끔 용인에 갈 때 초밥을 준비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져서 올 지환이 맛을 본다면 "별로"라고 할 것 같더라고.

▶ 라면: 요즘은 채환이가 매운맛을 즐기면서 라면을 찾는 날이 많아. 물론 라면을 자주 먹을 수가 없으니 더 찾는 것이겠지. 올 지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라면을 먹기 시작했잖아. 이모네랑 캠핑 가서 끓여 먹었던 라면 맛 잊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올 지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 라면이 아닌 라면이 폭 빠졌잖아. 홍대 앞 라면집을 순례하며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를 뒤통에 들었던단다. 일본에 갔을 때 다양한 라면 맛을 싣듯 맛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라면을 몰랐잖아.

▶ 육류: 아빠 자동차 트렁크에 가스버너와 팬이 실려 있는 것 알고 있겠지. 용인에서 언제든지 고기 맛을 보게 하려는 거야. 올 지환은 다른 10대들의 입맛과 매우 달랐어. 양념이나 소스 맛을 선호하지 않고 식품 고유의 맛을 좋아했잖아. 고기도 양념육보다는 생고기를 좋아했고. 야글구 올 지환이 좋아했던 부암동 스테이크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더라고. 그 스테이크집에서 포장해서 병실에 있던 올 지환에게 갖다 주려고 알아봤던 기억도 나는구나. 포장은 하지 못하고 목발로 찾아가긴 했잖아.

▶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아빠와 올 지환이 해치우곤 했었지. 아마도 그해 크리스마스 즈음에 서울대병원 로비 한쪽에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구나. 기름진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치킨을 멀리했는데, 먹고 싶은 것이라도 싣지 못하게 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구나. 이제는 집에서 치킨을 주문해 먹는 일도 거의 없어. 치킨 마니아가 집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혹시 치킨 생각이 나면 아빠 꿈에 나타나 살짝 귀땀하면 아빠가 가지고 갈게.

▶ 베라: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말하는 게 거주장스럽잖아. 베라에 가는 건 놀이동산 가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었지. 성산동에 살 때부터 줄곧 베라에 들어갈 때 가장 표정이 살아났던 올 지환. 놀라운 것은 10여 년 동안 베라의 입맛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지. 엄마는 외계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베라의 0순위이었잖아. 얼마 전 회사 식당에서 베라 블록팩이 후식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아빠의 똥이 엄마는 외계인이었던단다. 지금까지 사무실 냉동실에 있는데, 먹을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이제 올 지환이 스물넷이 되어서 아빠가 알던 입맛이 아닐 수도 있겠네. 채소를 싫어하던 입맛도 변했으면 좋겠구나. 파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골라내던 올 지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골고루 먹는 게 최고라 하더구나. 형과 함께 밥을 먹은 기억도 많지 않은 채환이가 올 지환의 입맛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채환이는 채소류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찌면 이제는 먹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아빠는 뭐라도 먹게 하고 싶은 맘에 먹을거리로 올 지환을 떠올려봤단다. 어디에서든 맛있게 먹는 올 지환이었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5
박선우
마음별

사랑하는 우리 선우에게..

선우야~♡ 엄마야~ 우리 선우 잘 지내고 있니? 엄마랑 아빠랑 형아랑 주하는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경기도로 이사 온 지도 어느새 일 년이 넘었구나.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예전처럼 너에게 자주 가지 못할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뻘 코로나19 같은 건 상상조차 못 했기에 이렇게 너에게 오랫동안 못 가게 될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단다. 너에게 가고 맛있는 걸 아무것도 챙겨갈 수 없어서 속상했는데, 이번 너의 생일에는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구나. 아가~ 조금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크리스마스에서 연초로, 아님, 너의 생일날이라도, 그것도 아님, 그다음 주라도 가야지 했었는데.. 대신 간소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려 집에서 가족끼리 함께 축하하며 너의 생일을 축하했단다.

참. 그리고 네 생일 즈음에 네가 항암치료를 받으며 만났던 친구 엄마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 그때 그 친구는 이식을 마치고 나와서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너는 병원에서 또래 친구를 만나니 좋은지 계속 그 친구를 만지고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아마 계속 병원에 있거나 원룸 생활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었나 봐. 그 친구는 아직 병원을 다니기는 하지만 유치원도 다니고 눈발에서 구르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선우도 엄마 곁에 있었음, 그렇게 지내고 있겠지? 말썽꾸러기! 소리 들으면서 말야~^^

이번 너의 생일에도 생일날에 맞추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꿈틀꽃씨에 보냈어. 우리 선우가 있었음 선우에게 해 주고 싶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아기였어도 늘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던 너였기에 이번에도 분명히 함께 기뻐했을 거라 믿어. 그런데 선우야. 사실은 한 번씩은 형아가 입던 옷이나 너 주려고 사놓았던 장난감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줄 때, 이거 다 네 건데.. 우리 선우 건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 우리 둘째가 있었음 형아 껴 아무도 안 주고 다 선우 줄 텐데, 우리 선우가 좋아할 장난감들도 다 우리 아기가 가지고 놀 텐데 그치? 이기적인 마음일지 몰라도 엄마의 솔직한 마음은 그랬어..

우리 선우 이제 7살이네~ 벌써 하늘나라에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생일인데 그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하늘나라에서 맞는 첫 번째, 두 번째 생일은 너에게 편지를 쓰고 꿈틀꽃씨에 함께 보내면서 세 번째 생일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쓸 자리를 양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안 썼는데, 먼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너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번에도 또 쓰게 되는구나. 선우야~ 있지. 음.. 이번이 꿈틀꽃씨 소식지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도록 할까 해. 엄마는 어쩌면 꿈틀꽃씨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올 때에만 '선우 엄마'로 불릴 수 있어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고 어쩌다 연락이 오면 반가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어쩌면, 새끼 먼저 보낸 어미는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아 매일 눈물을 참으며 지내다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적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해서 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엄마가 너를 놓아주지 않아서 편하게 있지 못할까 봐,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있는 너를 계속 소환하는 것일까 봐 자꾸만 걱정이 돼. 그리고 늘 자기 혼자 엄마아빠의 보물 1호인 것이, 선우는 특별 1호인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주하가 아프기라도 하면 혹시나 또 떠나버릴까 봐 걱정하는 도원이 형아와 이젠 작은 오빠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한 번씩 "이건 선우 오빠 거야?"라고 묻는 주하가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한단다.

아가~ 그래도 엄마 아빠는 늘 마음속으로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도원이 형아랑 주하한테도 네 몫까지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잘 지내고 있을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씩 너에게 다가가도록 할게. 박선우~ 우리 작은아들~ 너무나 보고 싶은 내 아가야~♡
우리 마음으로 늘 함께하자~ 엄마랑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 우리 둘째 선우가 너무나 보고 싶은 너의 영원한 팬 엄마가



6
최요한
마음별

하늘말나리를 닮은 우리 아들 요한이에게.

요한아~안녕!

학교 다닐 때 편지 써보고 정말 오랜만에 네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는구나. 21년 전에 네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지 하지만 한순간에 날벼락처럼 큰 아픔이 찾아오고 말았지.. 생소하고 알 수 없는 치료약은 물론 다른 방법도 없는 희귀질환인 근육병 (듀센근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네가 안스러웠는데 그때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이었지.. 그래서 엄마는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건 오늘이 지나고 새로운 내일이 오면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21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참~!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 아픔도 많았는데..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요한이가 엄마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는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내 곁에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지만 하늘말나리를 닮은 내 아들 요한아 내 가슴 한편에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고 느낀다.

하늘말나리꽃의 뜻은 모든 나라 꽃은 땅을 보고 피는데 하늘말나리는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다고 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견뎌내야 하지만.. 요한이는 하늘말나리 꽃처럼 21년 동안 많이 미약했지만, 자신의 꿈을 품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하늘을 향해 자신의 꽃잎을 활짝 피우고 떠난 너의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는 하늘에서 엄마를 위해 모두를 위해 해를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햇살을 같이 받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요한이의 하늘말나리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짙은 향기가 날지 엄마는 많이 궁금해지는구나~^^

보고 싶은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가





7
김민경
마음별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막내딸 민경이에게



너를 보낸 지도 벌써 200여 일이 되어가는구나. 처음으로 너에게 쓰는 편지가 왜 이리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왜 이제서야 쓰게 된 건지 너무 미안해. 아직도 꿈인 거 같고 현실과 상상을 수도 없이 오가는 요즘 엄마는 미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기 시작했다. 자꾸 20년 6월의 민경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을 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며 그날을 되새기며 지내고 있어. 엄마가 민경이 손을 놓은 거 같아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나 스스로를 용서 못 하고 확대하며 지내온 200여 일.. 살아야 하니 복직도 하고 공부도 하며 지내보지만 내 새끼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너의 흔적들을 보며 견디고 있단다. 그 긴

시간 내 딸은 어떤 표현도 못 한 채 엄마 목소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민경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나 더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후회만 되는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지켜준 게 아니라 민경이가 엄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어. 민경아 엄마는 요즘 너와 의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 본단다.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날, 돌잔치 때 울면서 나를 찾아 걸음마 하던 날, 언니 오빠랑 싸우고 쪼르르 달려와 고자질하던 모습. 침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 많이 생겼다고 상기된 채 행복해하던 날 등등.. 그리고 21년 동안 너와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했던 엄마의 시간이었음을.

민경아~ 이제 정말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최고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렴. 엄마는 엄마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민경이 만나러 갈게. 그날 만나고 싶던 내 새끼 맘껏 만지고 껴안아줄게. 21년 동안 엄마 딸로 살아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많은 분들이 민경이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고 민경이를 그리워하고 있단다. 이제 아픔과 고통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렴. 민경이가 어디에 있는 엄마가 꼭 찾아갈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8
이의연
마음별

의연아~

의연아라고 부르는 이름 끝에 따라오는 깊은 한숨은.. 숨쉬기조차 힘들어 산소호흡기에만 의존해야 했던 너의 모습에 가슴 아파서.. 엄마가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는가 지켜보는 것밖엔.

지금 엄마의 삶에서 가장 한숨짓게 하는 게 뭘지 알아? 우리 의연이가 유치원 다녔을 때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속상했던 일등 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 못했던 거야. 동생 시연이 잘 데리고 놀아주라고 부탁만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쉬는 시간,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녁 있는 삶이 이런 거구나.

가게를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던 그 날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그때 그제 최선을 줄 알았지만.. 우리 의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원도 가고 너하고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너하고 24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곳이 평범한 일상이 아닌 병원이었다는 게.. 맘껏 놀 수도 없고 맘껏 먹을 수도 없었던 아픔이 있는 병원이었다는 게.. 의연아~ 의연이가 옆에 없는 지금 엄마는 아픔이 있는 병원일지라도 좋아. 우리 의연이와 24시간 붙어있었던, 오로지 우리 의연이만 바라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좁은 침대에 서도 함께 누워 너의 손을 잡고 잠들었던 그 좁은 병원 침대라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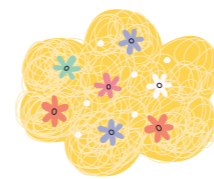
의연아 며칠 전에 우리 의연이 생일이자 기일이었잖아. 엄마-아빠-승연 언니와 함께한 의연이의 마지막 병원에서의 생일 기억나? 그날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한입씩 힘겹게 먹어주던 너의 그 모습을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지. 엄마의 마음 편하게 해 주려고 엄마 웃는 모습 보려고 애쓰던 너의 모습을.. 마지막까지도 엄마를 더 생각해주던 너의 사랑을..

의연아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를.. 우리 의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의연이처럼 먼역력 약한 아이들만 착용하는 전유물처럼 생각했었는데.. 엄마도 그때 처음 마스크를 써본 듯하다. 지금은 세상이 아프다. 병원이라곤 동네 소아과만 다닌 게 전부였던 너가 갑작스러운 림프종이란 진단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그것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평·원망하지도 않고 잘 견뎌준 게 엄마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더 아파.

의연이란 이름처럼 의연했던 너의 모습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단다. 아픈 중에도 엄마와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해주던 의연이었기에.. 한편으론 의연이란 이름을 잘못 지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의연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의연아 엄마는 의연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그 시간이 빨리 다가왔음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의연아 응원해주렴.



-영원한 나의 사랑 의연이를 생각하며 엄마가.





사랑하는 의연아,

만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빠 마음속에는 항상 의연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구나. 의연아 안녕~ 오랜만에 의연이에 대한 추억과 가슴 아픈 시절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구나. 의연아, 지금 전주에는 눈이 아주 많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어. 우리 의연이 눈 오는 날 집 앞에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도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가물가물 거리는데.. 시연이는 의연이 언니랑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단다. 우리 가족이 시연이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의연이 너의 빈자리가 있어서이겠지. 눈이 올 때나 봄이 와서 꽃이 필 때 여행 갈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빠는 사랑하는 의연이가 항상 아빠와 엄마, 언니, 동생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의연이와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며.. 호탕하게 웃던 의연이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의연아 사실 아빠는 두렵고 마음이 아파 고민을 많이 했단다. 의연이는 알 거야. 아직도 의연이가 곁에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버릴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근데 의연아 아빠는 엄마, 언니, 동생을 보면서 의연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덜 하게 되더라. 아빠 참 바보 같지. 그러면서도 우리 의연이를 생각하면 곁에 없다는 생각에 또 깊은 어딘가에 빠져들어 가는 것 같고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의연이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려고 해. 그게 맘처럼 잘 안 될 걸 알지만.. 너와 함께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볼 때나 차탈 때 시연이 옆에 너 대신 앉아있는 인형을 보면 순간 의연이가 어디 갔지? 너가 없는 현실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고개를 저어본다. 아빠 욕심이 많아. 특히 자식 욕심이 많은데 우리 의연이가 아빠의 눈에서 사라졌을 때 아빠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지. 아빠가 우리 의연이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가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이 기도의 말을 의연이가 듣게 될까 봐 못하겠더라. 혹시라도 의연이가 기도하는 아빠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할까 봐.. 이제는 의연아 편하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게. 정말로 이 편지가 하늘에 닿았을 하는 간절한 밤이다. 오늘은 의연이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의연이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의연이는 이쁨받고 기쁨 주고 사랑받고 사랑 주며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연아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오늘은 꿈속에서 의연이를 만나길 바라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던 헤리에게~♥

헤리야 안녕~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벌써 우리 헤리랑 사별한 지 벌써 2달이나 지났네..
 지난번 하늘나라로 보낼 때 엄마랑 오빠는 헤리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빠만 헤리한테 편지를 쓰지 못해서 후회했어~
 우리 헤리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헤리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헤리랑 같이 지낸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아빠는 그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헤리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하루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줄 알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 해주고 기다렸는데..
 아빠가 우리 헤리 힘들게 고생만 시키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딸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로 많이 이빠해 주고, 사랑해 줄 텐데..
 헤리 생각만 하면 지금도 항상 눈물이 나지만.. 앞으로는 울지 않고 좋았던 날들만 생각할게~

그리고 케익은 어제 승유 오빠랑 엄마랑 같이 만들었는데..
 승유 오빠가 우리 헤리 보고 싶어서 그런지, 헤리 생일 축하하자고 해서 케익 사진도 같이 보낼게~
 지금은 우리 헤리랑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빠랑 엄마랑 오빠는 우리 헤리 항상 기억하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
 정말로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헤리 아빠가



10
박서안
마음별

보고 싶은 서안에게

사랑하는 서안아~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고 있나?
이맘때쯤 흰 눈이 내리는 날이면 우리 서안이가 무척이나 보고 싶단다.
아빠와 엄마는 우리 서안이가 그곳에선 아프진 않은지 잘 뛰어놀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래서인지 매일매일 서안이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단다.

서안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이번에 서안이 여동생이 태어났어.
우리 서안이와 어찌나 비슷하던지 하는 행동부터 생김새까지..
동생 이름은 소율이야. 박소율! 서안이를 닮아서 이쁘고 참 착해!
그리고 잘 웃어 준단다. 우리 서안이도 정말 엄마아빠에게 잘 웃어줬는데... 기억나?
아직도 아빠는 서안이 웃는 모습이 생생하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도 서안이 웃는 모습 보려고 서안이 보러 많이 왔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엄마아빠가 동생 소율이한테 매일 서안이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어.
그리고 사진 보고 매일 인사도 시켜주고 있고,
소율이한테 정말 소중하고 예뻐던 언니가 있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잊지 않게 해주고 싶거든.
비록 지금은 우리 서안이가 곁에는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아빠, 엄마, 서안이, 소율이 4명이야.

사랑하는 내 딸 서안아~ 보고 싶은 내 딸 서안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아~ 아빠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 서안이 아빠가



11
김동우
마음별



동우야~ 우리 애교쟁이에 멋진 상남자~ 멋진 번개맨!

우리 동우, 뭔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이식실패인 거 알고도 잘 이겨내다가.. 폐 소리가 안 좋아.. 중환자실 가기 전에 소아병동 시티촬영실에서 조영제 라인 잡고 촬영 대기하고 있는데 문득~ "나도 하늘나라 가서 동현이랑 놀고 싶~~다~~"하고 말끝을 흐리게 얼버무리며 멋쩍게 미소 지었었지? 엄마는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그때 정말 몰랐었어. 아니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 2019년 1월 10일 이식받던 날이 새로운 너의 생일이 될 거라며, 엄마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네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원 수속을 했던 거 같아. 엄마가 우리 동우보다 축이 없었나 봐.

우리 동우의 예상 아닌 예상처럼, 동우는 지금, 먼저 가서 혹 외로울 동생 동현이를 잘 만나서 신나게 경주에서 함께 보냈던 추억처럼 신나게 놀고 있겠지? 아빠가 지난 설날에 동우 동현이가 장난치며 세배하는 모습을 동우 동현이가 같이 문힌 나무 앞에서 기도하니 보였다고 하시네?

동우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 동우가 가끔 찾아오는지, 어떤 분은 동우 꿈을 꾸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주시기도 한단다. 엄마는 아직 동우가 아기던 장난감이랑 아이패드랑 이불이랑 멋진 번개맨 옷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새로 이사 온 집에 같이 이사 왔단다. 아직은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동우 물건들 다 꺼내 보진 못하고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동우 옷이랑 이불도 새로 빨아두고, 장난감들도 따뜻한 햇살을 한 번씩 쬐워줘야겠다~아! 가끔, 사촌동생 태호가 와서 동우 형아 장난감 조금 가지고 놀다 가곤 해~ 그리고, 엄마가 조금 더 용기가 나면, 동우가 좋아해서 줄줄 외워 읊조리던 "알사탕",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다시 꺼내 읽어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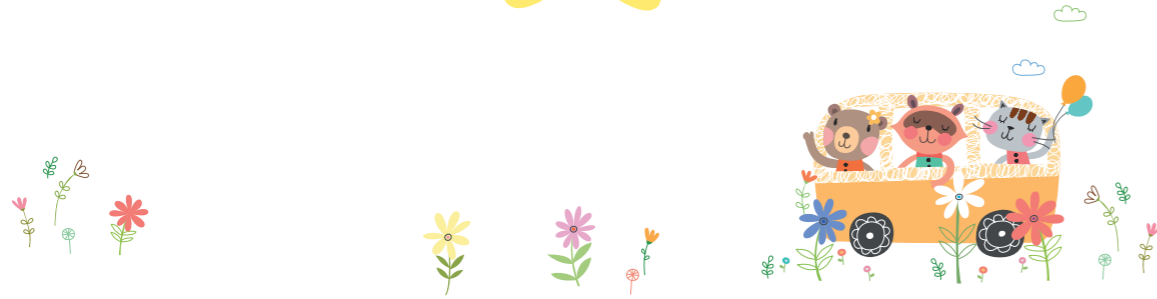
사랑한다.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고,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현명하지 못해 오래오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더 사랑해서 미안해! 동우가 미안해하는 엄마 모습보다는 행복하고 당당하게 남은 삶 보람차게 사는 모습을 더 이뻐할 거라고 다들 응원해주시니, 엄마아빠랑 같이 건강하고 열심히 살다가 동우 동현이 보러 갈게!!!

- 2021년 1월 어느 날... 경주에서 동동브라더스 엄마가.





12
이채원
마음별



채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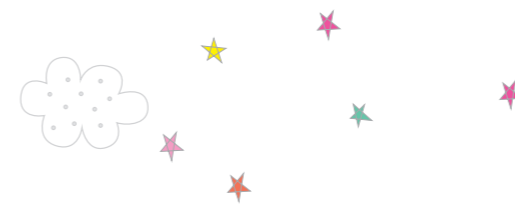
채원아 예은 언니야 네가 벌써 하늘나라로 간 지 3년이 지났어. 언니 이제 중3 되고 너는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네 우리가 6살 차이이고, 너하고 현택이도 6살 차이 나는데 우리 공통점이 정말 많다. 채원아 네가 실재론 현택이를 본 적 없지만 네가 현택이를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를 무척 아껴 그리고 또 내가 저번에 채원이 춤추는 동영상 봤는데 정말 잘 추더라 그것도 나랑 정말 비슷한 거 같아 네가 어린 나이에 우리와 잠시 떨어져서 너무나 멀리 산다는 게 가슴이 미어져. 하지만 우리 채원이 씩씩하고 용감한 거 언니도 다 아니깐 하늘나라에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해 언니가 채원이 생일 파티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 근데 채원이가 많이 못 논 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채원이를 너무 빨리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너무 밍그 속상해 근데 항상 채원이 영상처럼 채원이 사진도 보고 채원이가 그린 그림도 보면 언니가 힘이 불끈불끈 나고 정말 기분이 좋아져 채원이 얼마나 이쁘는지 몰라 언니는 지금 채원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로 이쁘고, 제일로 착하고, 제일로 언니랑 말도 잘 통하고 진짜 최고야 언니는 채원이가 있었던 7년 동안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좋았어. 너도 그렇지?? 솔직히 너 머리 잘랐을 때 정말 솔직히 이뻐서. 어쩔 머리를 다 밀었는데도 이뻐서. 머리 짧았을 때, 보면 지금 현택이랑 너무나 닮았어. 돌이 판박이인 거 알지 나랑 유진이 언니가 닮은 것처럼 채원이 너하고 현택이랑 진짜 닮았어. 순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채원이 생각 많이 났어. 채원이가 갔었던 곳이 생각나기도 하고 채원이가 웃고 떠든 게 막 생각이 났어. 이런 게 추억인가? 너도 생각나지? 나 그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정말 떨리고 했었는데 다 추억이네. 또 채원이 어린이집 등하교한 거 많이 생각난다. 언니가 많이 데려다주기도 하고 미술학원에서 같이 미술 그리고 아맛아 미술하면 우리 이채원이지.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 송중기 유시진 대위 그린 거 정말 잘 그렸잖아. 진짜 너는 미술 해야 해. 내가 봐도 그건 나보다 잘 그린 거 같아.

멋졌어. 그래도 동생들은 다 똑같나 봐 나 빼고 그림 잘 그리는 거 같아 그리고 채원이 유치원 장기자랑 했을 때 언니랑 유진 언니랑 엄마랑 갔었는데 채원이가 정말 연습 많이 했나 봐 정말 깜짝 놀랐어. 너 진짜 진짜 어릴 때 뮤지컬도 많이 봤었는데 그때도 정말 재밌었어. 편지 쓰다 보니깐 채원이가 퍼즐 맞추고 랍스타 먹고 자전거 타고 마스크팩하고 새해맞이하고 채원이 가발 써보고 스티커 앱으로 사진 찍어 놓고 채원이가 패션쇼 같은 것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 먹을 거도 많이 먹으러 다닌 거 다 생각난다. 우리 정말 좋았다. 너 못해본 게 없어 정말 우리 잘살고 있으니깐 우리 채원이는 우리 걱정하지 말고 휴가 맞은 것처럼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언니 오빠 동생들과 실컷 놀아. 채원이 지칠 때까지 실컷 놀아 언니 유진 언니 엄마 아빠 현택이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큰아빠 이모들 삼촌들 채원이 친구들이 평생 채원이 사랑할 거니깐 채원이는 걱정하지 말고 놀고 있어 특히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언니들 현택이도 정말 채원이 사랑하는 거 알지? 채원아 그래도 심심하면 언니 꿈에도 나와줘 어떻게 3년 동안 안 나올 수가 있어 네가 때가 되면 나와줄 거라 믿어 채원아 항상 사랑하고 채원이 너무 보고 싶다. 네가 나의 동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해 우리 다시 태어나서도 언니 동생 해 줄 거지?? 나는 채원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언니 맘 알지?? 항상 사랑해 채원아



상 사랑하고 채원이 너무 보고 싶다. 네가 나의 동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해 우리 다시 태어나서도 언니 동생 해 줄 거지?? 나는 채원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언니 맘 알지?? 항상 사랑해 채원아

- 예은 언니가



13
정호
마음별

너무 늦지는 않은 건지.
날씨가 넘 추운데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호야호야호야!
널 보내고 넘 힘들어 편지 쓸 여력도 없었던단.
미안해 아들. 일 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씩씩한 척 살려니 너무 힘들더라.

다음 주면 올 호야 28번째 생일이구나.
올 귀엽둥이 아들. 내 똥강아지 1호.
넌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 꼭 기억해.
아빠도 환이도 잘 지내고 있어.
너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씩씩하게 살고 있단다.
호야가 엄마한테 주고 간 사랑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웠고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널 만나러 갈 땐 너의 사랑을 가득 안고 갈게.

아직도 호야는 엄마한테 짱이야.
사랑한다 내 새꾸.

- 엄마가





14
정시운
마음별



시운이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운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아빠도 잘 지내고 있단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시운이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 계절이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쯤이면 시운이가 웅알이도 하고, 아장아장 걸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한없이 귀여움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고, 네가 있는 동안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시운아, 너 그거 아니? 네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너를 만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갔었는데.. 시운이가 두 눈을 뜨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보았던 너의 새까만 눈동자가 너무나 아름다웠단다. 그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눈이 부셨거든.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뻐했어. 그런데, 시운이는 나쁜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건지.. 그 이후론 항상 눈을 감고 있었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너를 보면서 정말 나쁜 병이 깨끗이 없어져서, 빨리 건강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었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시운이에게 찾아온 병이 ATRT라는 병인데, 치료가 어렵다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병원에 외롭게 두지 말고, 집에 데리고 가서 많이 사랑해주라고 하셨어. 그래서 시운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콧줄 끼는 법, 목욕하는 법, 상처 소독법 등 선생님들께 열심히 교육을 받았었지. 그리고 너를 위해 가장 예쁜 침대를 골라 폭신평신한 매트도 놓아주고, 할머니께서 사주신 따뜻한 이불도 깔아주고, 너에게 주려고 처음으로 샀던 예쁜 모빌도 침대에 달았지.

집에서 지내는 동안 너 어땠었니? 너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운이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겠지? 그랬으리라 믿고 싶구나. 그동안 긴 수술과 수많은 주사바늘에 긴장했었는지 잔뜩 움크렸던 몸을 집에 와서 처음으로 펴고, 손과 발을 뻗어 기지개도 많이 폈었지? 그때 너의 모습 정말 귀여웠었는데.. 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39일 만에 우리 곁을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단다.

너를 안고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너의 따뜻했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시운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날 밤 병원에 너를 혼자 두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아프고 싫었던단다. 지금도 너의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그리고, 많이 보고 싶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 밤낮으로 너무나 수고해주시고 애써주신 서울대학병원 완화의료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고, 소중했던 너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네가 태어났던 서울대학병원에 반짝이는 별과 함께 너의 이름도 새겨 두었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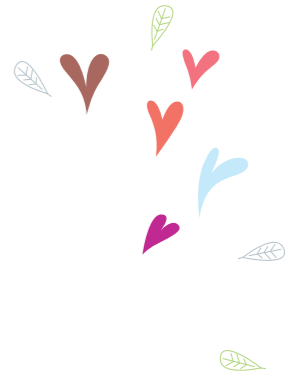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라도 우리 곁에 너의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어. 네가 우리 곁에 잠시 있다가 떠났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가 우리 아들이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널 마음 깊이 평생 간직하고 기억해줄 거야.

처음엔 널 보내고,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왜 시운이를 데려가셨냐고 울면서 기도했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운이가 나와 함께 잘 있단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엄마 아빠는 다시 힘을 얻었고, 조금만 있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단다. 널 다시 만나면 그동안 너에게 못 해 주었던 것들 모두 다 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엄마, 아빠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운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 오구나. 시운이 널 생각하면 벚꽃이 생각나. 너는 너무나 눈부시게 예뻐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벚꽃 같았거든. 그래서 시운이를 벚꽃 나무 아래에 묻어 주었지.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올 때마다 시운이 네가 많이 생각날 것 같구나. 너무나 보고 싶은 시운아! 우리 곧 다시 만나자~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널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엄마아빠가

15
류현태
마음별



현태야, 그리운 우리 아가..

늘 일기에 너에게 이야기하듯 쓰는데 막상 또 이렇게 편지로 쓰려니 눈물이 먼저 난다.

현태야.. 하고 너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듯

그립고, 또 그립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아픔이 밀려와.

네가 그리운 만큼 엄마는 계속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현태의 아픈 모습, 마지막 모습이 아닌 너의 웃음소리 작은 습관들

너의 감촉, 너의 냄새 등을 기억하고,

너의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 몇 달은 네가 어린이집에 간 것만 같고,

잠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네가 없다는 게 실감 난단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너. 네가 머물던 자리를 보면 아직도 너의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젠 그런 너를 안아줄 수 없다는 게 엄마는 가장 슬프단다.

얼마 전엔 분명 너의 꿈을 꿔는데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울면서 잠에서 깬어.

잠결에 우는 엄마를 깨우던 아빠에게 꿈을 꿔어. 라고만 말해도 아빠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웃더라.

아빠도 우리 현태 많이 그리워해. 알지?

추모공원에 가는 날이면 엄마보다 더 많이 우는 울보 아빠를.. 그곳엔 네가 없을 건데..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보고 있을까?

비람으로 비로 눈으로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러 오는 걸까?

늘 엄마 곁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 어디에서건 너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느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으며 아픈 주사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있을 건데.. 분명 그럴 건데

단지 너의 웃음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듣고 싶구나.

엄마 꿈속에 찾아와 그 그리운 웃음 한번 웃어 줄 수 있을까?

너무나 그리운 우리 현태. 사랑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예원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가 엄마 대신 이모가 편지를 써. 이모가 예원이랑 했던 약속 못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 작은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가. 가족들은 여전히 예원이 보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나. 그러다가 예원이 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슬프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아가, 하늘나라는 어때? 예원이 좋아하는 나비랑 고양이도 있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이모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예원이 가족들 곁에는 없지만, 고통과 아픔 없는 곳에서 천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 그곳에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믿어. 그래도 이모는 여전히 우리 예원이 목소리랑 웃음소리가 듣고 싶고, 같이 눈 마주치고 웃고 싶고, 예원이 몸 꼭 안고 싶고, 얼굴도 만지고 싶어. 그래서 매일 자기 전 꿈에서 예원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아직은 이뤄지지 않았어. 그래도 이모는 예원이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쁜 거라 생각할게. 그래도 이모 꿈에 한 번쯤은 찾아와 줄 거지? 이번에는 이모가 기다릴게. 우리 예원이와 와 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그러니까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오늘도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나님 품에서 달달한 낮잠도 자고 밤에는 편히 쉬렴. 아가 사랑하는 예원아, 우리 아가 이모가 정말 정말 사랑해.

- 예원을 사랑하는 이모가.



사랑하는 우리 딸, 황시온에게

안녕 우리 시온이, 지금은 어디서 깔깔 웃으며 놀고 있을까? 우리 같이 꿈틀꽃씨에서 참 재미있게 많이 놀았지? 시온이가 꿈틀꽃씨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 엄마는 꿈틀꽃씨 신문에 실릴 시온이에게 보내는 편지 쓰고 있어. 엄마도 병원에서 시온이랑 있을 때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가 쓴 편지들 읽고 참 많이 울었는데 엄마가 쓰는 이 편지를 읽고 다른 아저씨, 아줌마도 많이 울 수도 있겠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시온이가 엄마를 꼭 안아주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시온이 없는 이 허망하고 쓸쓸한 세상에서 그래도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시온이가 하나님처럼 같이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도 알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온이를 엄마 딸로 낳게 하시고 함께 5년 넘게 같이 살 수 있어서, 보석 같은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고마워. 엄마는 늘 우리 시온이가 너무너무 많이 많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시온이 입에 맛 있는 거 꼭꼭 넣어주고, 같이 손잡고 재밌는데 가고 싶고 그런데, 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더 잘 해주지 못했을까 지금도 참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래. 엄마 회식 가지 말걸, 시온이랑 더 신나게 놀아줄걸, 시온이 앞에서 화내고 짜증 내지 말걸 사달라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더 사주고 할 걸. 같이 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 같이 못 해서 너무 아쉽고 우리 시온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그려네. 그래도 지금 시온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많은 하늘나라 착한 친구들과 매일 매일 신나게 잘 놀고, 또 불쌍한 친구들도 도와주고 잘 있을 거야. 우리 시온이는 정말 속도 깊고 착한 어린이여서, 엄마한테 너무 과분한 예쁜 딸이었는데 엄마가 그때는 참 많은 걸 모르고 살았어. 시온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도 시온이 같이 앞으로 더 힘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구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도와주다가 빨리 시온이 만나러 갈게. 엄마도 시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꼭 갈 수 있도록 할게. 하나님께 엄마를 잘 인도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어. 이 세상에 모든 건 그대로인데 우리 시온이가 없어서 엄마 너무 슬프지만, 우리 시온이가 하느님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해야 해서 데려가셨구나 하고 있어. 시온이 계속 엄마 보러 자주 놀러 오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 벌써 와있는데 엄마가 바보같이 모르고 그래도 엄마 꼭 안아줘. 고마워 황시온, 사랑해. 엄마랑 꿈에서도 만나자.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 우리 공주님.



-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밤, 시온이가 제일 사랑해 준, 시온이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따스한 마음의 위로를 건네는 시를 소개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인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7. 나눔코너

2020년 꿈틀꽃씨를 후원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바로 꿈틀꽃씨를 찾는 환자 및 가족께 힘이 되기 위하여
진심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 물품 후원자님, 지정기부 후원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꿈틀꽃씨를 응원해주시는 수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꿈틀꽃씨 SNS 게시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꿈틀꽃씨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서 모두 후원자님이십니다.



1 | 물품후원자 (2020년 1월~2020년 12월)

이름	내용	나눔날짜
정대희 팀장님 (의료사회복지팀)	자석블럭 장난감세트	2020.01.02
하지수 (병원직원)	장난감, 치약, 비누, 코코몽 영아용 책 등	2020.01.02, 06.05
강윤미 (임시우 가족분들)	캐릭터 컵 4개	2020.01.03
이주영, 이라영	드림박스 50개	2020.01.03
주희, 주연, 승현	미니 팔레트 24개	2020.01.03
강병두	디폼블럭 세트	2020.01.05
지앤지	어린이 마스크(중형, 소형)	2020.01.15
박선우 가족분들	장난감, 책	2020.01.03
강지연	책 3박스	2020.01.08
김승현, 권하라, 김나영, 김동혁, 김승현, 김성민, 김학림, 윤상일, 송원지, 하지연	생일파티 다과 후원(집모양 상자)	2020.01.10
황시은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1.13
김조이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1.15
최지운	어린이 마스크(소형)	2020.01.14
홍승희	쌀 머핀	2020.01.14
원창재	소보루 단팥빵	2020.01.07

이름	내용	나눔날짜
브랜드가든	찰리 쿠키, 곰돌이 쿠키	2020.01.15
방성우	기자귀	2020.01.16
이상연	생크림 머핀 및 쿠키	2020.01.17
주세진	초코머핀, 초코소보루	2020.01.21
조이래빗	그림책 15권	2020.01.25, 07.23, 12.16
박성빈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1.31
이준우	장난감	2020.02.10
서윤후	장난감	2020.02.21
이하준	수제 수세미, 생일맞이 음료수, 머리끈 30개	2020.02.25, 08.14, 12.08
남다현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2.28
(취서울식연 (한국메이크어 위시재단 방귀속 봉사자 선생님)	소독 물품	2020.03.13
나영서	딸랑이, 쪽쪽이	2020.03.16
윤송이	영당이가족 만화책	2020.03.16
방하민 가족분들	아이들 선물	2020.03.17, 05.06
김지안	어린이 마스크 20봉지	2020.03.23

이름	내용	나눔날짜
장서영 가족분들	휠체어	2020.04.03
이정은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4.03
신예진 나누미	사인펜, 수채화 물감, 스티커 북 등	2020.04.10
김나은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4.13
정현	장난감, 라이언 인형 등	2020.04.13
백승민, 김아림 나누미	책, 장난감, 생일파티 물품, 스티커 북	2020.04.16, 05.20, 07.28
서동인 교수님	과자 세트	2020.04.20
소아암재단, 서소멘	손 소독제, 드립 커피, 과자	2020.04.24., 05.11, 05.26
정구혜	장난감	2020.05.04
강현서	장난감	2020.05.05
이혜령 나누미	스티커 아트보드	2020.05.06
조동아리 이주영	모자	2020.05.11
박광현	손 소독제	2020.05.13
최요한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5.18
한국소아암재단	과자 12박스, 장난감 및 다과	2020.05.30, 12.07
안근우	장난감	2020.06.03
윤능서 가족분들	환자치료 물품	2020.06.15
김민준	멸균우유 네 박스	2020.06.15, 07.31, 10.28, 12.8
조득현 선생님 (소아완화의료팀)	아이들 책 10권	2020.06.16
아이토빅	병동 연결 물품	2020.07.09
강희경 교수님 (소아형소년과)	색연필, 사인펜 세트, 색연필 세트, 퍼즐, 펜, 블록, 팔찌 만들기, 십자수 등	2020.07.13, 07.31, 08.10, 08.12
김종환	어린이 마스크	2020.07.13
김초은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7.14
조은빈	종고인형	2020.07.15
김지오 가족분들	졸즈 데이 콰드로 영유아 유아모차	2020.07.28
최철희	만화책, 음반CD	2020.08.04., 09.09
윤영주	와플, 주스	2020.08.06
조유찬 가족분들	다과, 퍼즐 세트	2020.08.06
찾아가는공예학교	수제 토끼 인형	2020.08.07
청주본죽집	약과	2020.08.12
곽원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8.14, 08.19
박조현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8.18

이름	내용	나눔날짜
장원희 가족분들	생일맞이 토퍼	2020.08.20
최*정	장난감	2020.08.20
우지연 나누미	볼펜, 다과 세트	2020.08.21
김재훈 가족분들	휠체어	2020.09.02
김예은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9.08
오주연 가족분들	KF94 마스크 대형 300개	2020.09.16
이명호 가족분들	성인 칫솔 2box, 아동 칫솔 2box	2020.09.18
업드림코리아	손 소독제 500ml, 60ml 세트	2020.09.16
홍인주	현혈증 21장	2020.09.25
고대환, 은환, 은서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09.27
하한샘 (세임디)	담요, 티코스터 20개	2020.10.12., 12.07
김도균	역사 만화책	2020.11.02
김태율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 물품	2020.11.05, 12.04
이나경	굴	2020.11.30
남윤석, 남현수 가족분들	물티슈	2020.11.30
이찬기 나누미	크리스마스 선물 꽃차 50개	2020.12.17
권도연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미니 장난감	2020.12.17
배지은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양말	2020.12.17
이소연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장난감	2020.12.17
박민주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장난감	2020.12.17
이하윤 가족분들	환자치료지원물품	2020.12.18
종로문화재단	크리스마스 선물 10세트	2020.12.21
박혜령	종고 장난감	2020.12.22
유영수, 오채은	크리스마스 선물 20세트 (크레파스, 색칠공부 책)	2020.12.23
현대차정몽구재단	소아청소년 도서 250권	2020.12.24
한지은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비즈 반지	2020.12.29
조수민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2020.12.29
윤소현 나누미	크리스마스 편지	2020.12.29
이한나, 임선영 (오후네 시의 참)	DIY 크리스마스 카드 50개	2020.12.29





2 | 어린이병원후원회를 통한 지정기부자 (2020년 1월~ 2020년 12월)

***분홍색 채움** : 분홍색 채움에 해당하시는 단체 및 개인 기부자님들께서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꿈틀꽃씨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꿈틀꽃씨 존재의 이유를 깊이 이해 해주시고 신뢰 해주셔서 후원을 지속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분	후원자명	금액	구분	후원자명	금액
단체/법인후원	모간스탠리증권	85,733,499	개인 일시후원	정민규	10,000,000
	SGI서울보증	30,000,000		유영태	5,000,000
	LG전자(주)	10,740,000		허홍	3,000,000
	해밀회	10,000,000		조미현	3,000,000
	키움인베스트먼트(주)	10,000,000		윤승애	2,850,000
	주식회사 청원이엔씨	2,700,000		김민영	1,700,000
	재단법인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1,000,000		김서민	1,000,000
개인 일시후원	김성주	50,000,000		김동준	1,000,000
	조 제니영	50,000,000		안주연	1,000,000
	유동원	35,000,000		추인실	500,000
	김중현	30,000,000		정기남	273,600
	김희영	20,000,000	박지현	200,000	
	변성윤	20,000,000	익명	40,000	
			이영광	1,000	

3 | 개인 정기기부

구분	후원자명	총 금액	구분	후원자명	총 금액
개인 정기후원	홍혜리	8,100,000	개인 정기후원	송준서	360,000
	조태준	2,400,000		강재실	360,000
	송인규	1,200,000		박상은	350,000
	오광일	900,000		문이지	330,000
	김아림	900,000		이정민	300,000
	김초희	600,000		전선호	270,000
	이소미	600,000		민세연	270,000
	문혜진	600,000		금다정	240,000
	성동혁	592,080		정희선	240,000
	민지수	500,000		익명	240,000
	박가은	400,000		조서연	240,000
	서금석	400,000		강지훈	240,000
	강수영	360,000		이호진	240,000
	김채민	360,000		권도연	220,000
	임종성	360,000		권순민	210,000

구분	후원자명	총 금액	구분	후원자명	총 금액
개인 정기후원	정영은	210,000	개인 정기후원	이혜령	80,000
	윤승희	180,000		김남이	70,000
	배지은	140,000		박부경	60,000
	박광욱	120,000		이윤아	60,000
	최순희	120,000		안지현	20,000
	유주연	120,000		신지희	10,000
	김세창	120,000		이동규	10,000
	신예지	110,000			

3 | 꿈틀꽃씨를 꾸준히 믿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의 목소리

2020년 한해도 꿈틀꽃씨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홍색으로 표기해둔 분들께서는 꿈틀꽃씨에 3년 이상 장기 후원자이신데요!!! 꿈틀꽃씨의 성장을 한결같이 지켜봐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후원금이 적절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1 강수영 선생님

Q1.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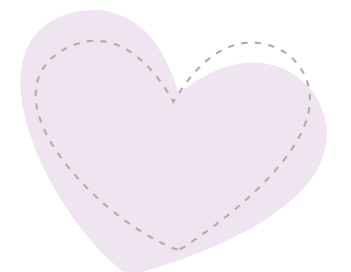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끝내고 서울 린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 중인 강수영입니다.

Q2. 꿈틀꽃씨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셨는데요, 꿈틀꽃씨의 성장과 함께해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소아청소년과 수련 받는 동안 아픈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전공의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는데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듣고 위로하는데는 너무도 미흡했던 것이 지금까지 아쉬움이자 마음의 짐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잠시 꿈틀꽃씨 봉사자로 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근무와 육아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대신 후원으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Q3.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꿈틀꽃씨에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지, 또는 바라시는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꿈틀꽃씨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 등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꿈틀꽃씨에서 어떤 용도이든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꿈틀꽃씨 팀 언제나 응원합니다!!!





2 유동원 후원자님

Q1.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유동원 교수입니다.

Q2. 꿈틀꽃씨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셨는데요, 꿈틀꽃씨의 성장과 함께해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질병으로 힘든 상황은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것이구요. 저의 연구 분야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되어 있다보니, 아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막연하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느낌에 머물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한동안 입원했던 일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여러 증상으로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많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입원해있던 동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바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퇴원 후 가족들과 의논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회에 연락 했습니다. 그 때 후원회를 통해 꿈틀꽃씨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오랜 병원 생활로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주고자 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더없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저 없이 꿈틀꽃씨의 후원을 결정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Q3.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꿈틀꽃씨에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지, 또는 바라시는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꿈틀꽃씨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 등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지치지 않고, 병원 내 여러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지내다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꿈틀꽃씨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제적 후원과 뿐 아니라 재능기부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꿈틀꽃씨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윤승애 후원자님

Q1.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윤승애입니다. 그리고 20개월이 된 딸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사람의 아내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Q2. 꿈틀꽃씨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셨는데요, 꿈틀꽃씨의 성장과 함께해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완화의료라는 건 연령이 높거나 희귀질환에 해당한다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 방영된 김민선 교수님의 소아완화의료팀 다큐를 뒤늦게 재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지라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만 다큐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큰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었고, 당시 김민선 전문의께서 따뜻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큐 안의 아이들이나 치료진들의 모습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가 저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Q3.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꿈틀꽃씨에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지, 또는 바라시는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꿈틀꽃씨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 등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제 손에서 떠나면 더 이상 저의 뜻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판단 하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거라 늘 믿고 있습니다. 가끔 꿈틀꽃씨 책자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자라나는 딸에게도 나눔에 대해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여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4 | 나누고 싶은 나눔 소식

1 [1월의 후원] - 특별한 후원

매년 1월 초면 도착하는 특별한 선물이 있지요. 1월 4일, 예쁜 미소 천사 선우의 생일을 기념하여 선우 가족분들께서 정성담긴 선물을 꿈틀꽃씨 쉼터로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선물을 보내주시곤 하셨지요. 올해에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이클레이, 색칠공부, 물감 놀이 등 다양한 장난감을 전달해 주셨답니다. 사랑이 담긴 선물은 꿈틀꽃씨 쉼터에 방문하는 치료 중인 친구들에게 잘 나누었으며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는 친구들을 위하여 정성 가득 담긴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선우 가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틀꽃씨는 선우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과 따뜻한 미소를 함께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선우를 기억해주시고 축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우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해 ♥





2 [한국소아암재단의 후원]

2020년 5월, 맛있는 간식 후원이 들어왔어요. 바로 서울대 소아암 멘토님들의 연결을 통해 '한국소아암재단'에서 보내주신 깜짝 선물인데 요. 간식들은 꿈틀꽃씨 직원들의 포장을 거쳐 낮병동, 7B병동, PICU, NICU, 소아인공신실 친구들에게 80세트가량 전달하였습니다.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한국소아암재단께 감사드리고, 물품이 적절하게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좋은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소아암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 [마음이 담긴 응원 재능기부]

2020년 8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아완화의료, 꿈틀꽃씨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방송인 '박미선 님, 권진영 님' 그리고 조 이폴사운드에서 재능기부로 제작된 CCM 음원을 내고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및 가족을 생각하며 제작한 음원이라 그런지, 음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꿈틀꽃씨 친구들과 가족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재능을 펼쳐주시고 함께해주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① 이런 나를 ② 주님의 날개로 ③ 해나님이 ④ 더 갈 수 없어

4 [꿈틀꽃씨 후원 설명 브로셔 및 약정서]

2020년, 작년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꿈틀꽃씨 자체적으로 후원설명 브로셔 및 약정서를 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스무 분의 후원자님이 약정서를 보내주신 덕분에 정기후원자 씨앗이 스무 알 추가로 심어졌습니다. 아직 홍보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조금씩 모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리라 생각합니다.

- 후원 약정서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지훈, 권순민, 김남이, 김아림, 민세연, 박부경, 박상은, 박연희, 박지현, 배지은, 서금석, 신지희, 안주연, 안지현, 이동규, 이정민, 전선호, 정영은, 추인실'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 COVID-19 상황에서도 만나고 싶어요, 비대면 참여형 사랑나눔 이벤트

꿈틀꽃씨 소식지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혹시나, '어! 나도 꿈틀꽃씨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꿈틀꽃씨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코너 중 한 가지 형태로 참여하시면 [꿈틀꽃씨 후원 안내자료와 함께 꿈트리 3종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참여형태 1]

1)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꿈틀꽃씨 응원 게시글을 올립니다.

- 꿈틀꽃씨 소식지를 본 후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들고 사진촬영하여 게시글을 올립니다.

ex) 따스한 소식지 읽고 힘이 나네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아동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 힘내세요! 꿈틀꽃씨 화이팅!! #서울대학교병원 #꿈틀꽃씨 #소아완화의료팀

2) 업로드한 게시글 링크를 아래의 메일로 공유합니다.

- children.dreamseeds@gmail.com



[참여형태 2]

1) 어린이병원에서 치료 중인 친구들을 위하여 친구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만들기 설명 영상을 촬영합니다(5분 이내).

ex)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친구들을 위한 영상 - 설날 카드 만들기

2) 촬영한 영상 파일을 아래의 메일로 공유합니다.

- children.dreamseeds@gmail.com



※ 보내주신 게시글 및 영상은 꿈틀꽃씨 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2차 가공 하여 사용될 예정이므로, 꿈틀꽃씨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공개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 안내

어린이병원후원회를 통한 후원

꿈틀꽃씨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기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어린이병원후원회
T. 02-2072-3004]

꿈 풍선 1



물품 후원

2021. 2 기준,
꿈틀꽃씨 센터 등록인원은 2,871명으로
COVID 19 이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 타임 당 한 가족씩 방문하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꿈틀꽃씨 센터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을만한 물품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풍선 2

꿈트리와 함께 꿈꾸어주세요

꿈트리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 중인 친구들과 가족들의 편안한 하루를 함께 꿈꿉니다.
꿈트리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소소한 재능, 물품, 자원을 기부하고 싶으신 분은 편히 연락주세요.

[문의 T. 02-2072-3523]

꿈트리와 함께 꿈꾸어주세요!

꿈틀꽃씨 지정후원 안내

꿈틀꽃씨 친구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꿈틀꽃씨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따스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리려고 해요!

꿈틀꽃씨 지정후원 방법 하나!

- 1 후원하기에 앞서 **꿈틀꽃씨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누구를 위한 곳인지 확인**한다.
(아래의 QR코드에 들어가시면 꿈틀꽃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꿈틀꽃씨 지정후원 방법 둘!

- 2 꿈틀꽃씨와 함께하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겠다는 확신이 들면,
후원회원 예우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꿈틀꽃씨를 후원하기로 마음 먹는다.**

꿈틀꽃씨 지정후원 방법 셋!

- 3 꿈틀꽃씨 후원인 전용 브로셔 마지막장에 삽입되어 있는
후원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꿈틀꽃씨 지정후원 방법 넷!

- 4 정기후원이 시작되면, 내가 낸 돈이 투명하고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꾸우욱~ 꿈틀꽃씨에 관심을 갖는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꿈틀꽃씨와 함께해주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후원인 전용 브로셔를 제작하였습니다. 브로셔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children.dreamseeds@gmail.com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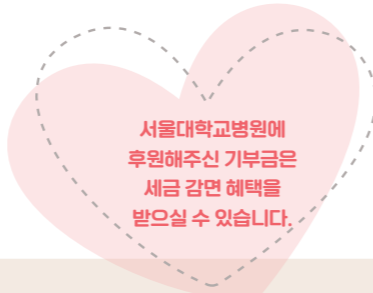
꿈틀꽃씨 후원자 안내 브로슈어
dreamseeds.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치 : 꿈틀꽃씨 ▶ 정보 ▶ No. 꿈틀꽃씨 후원자 안내 브로슈어]

오늘도 꿈틀꽃씨 친구들과 가족의 행복을 함께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후원회원 예우 프로그램

후원회원 예우 프로그램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회원성명 영구보존	건물 벽면	●	●	●	●	●
	병원보, 매거진, 연보	●	●	●	●	●
후원인의 거리 - 기부스토리 소개 (개인 기부자)					●	●
감사장 증정	●					
감사패 증정 (5천만원 이상 흉상감사패)		●	●	●	●	●
각종 행사 초청		●	●	●	●	●
예우카드 교부 (무료 주차)	후원회원 및 후원회원가족 1명	10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진료비감면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연간 3백만원 한도/회원 및 가족 합산)	후원회원 및 배우자	3년	10년	평생	평생	평생
	부모 및 자녀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검진비 (검진 1회 100만원 한도, 1매당 2년 이내 사용)	후원회원 및 배우자		1년간 연 각1매	3년간 연 각1매	5년간 연 각1매	평생 연 각1매
각종 진료 지원	외래예약, 입원, 검사, 응급실	●	●	●	●	●
	후원인지원실이용		●	●	●	●
병원 간행물 발송 (병원보, 달력 등)		●	●	●	●	●
기념품 제공		●	●	●	●	●

- ▶ **법인(단체)** : 대표자 및 배우자(또는 공동대표자) 1인에 한해 예우
- ▶ **후원회원가족** :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에 한해 예우
- ▶ **예우카드 교부** : 만 18세 이상 후원회원에 한해 발급
-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후원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



기본정보

*표기된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기부영수증 발급시 기재 필요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 _____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자택 / □ 직장) _____

*휴대폰 _____ 전화번호 _____

직장명 _____ 소속부서/직위 _____ 전화번호 _____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관계

구분 환자 보호자 동문 교직원 기타()

약정정보

소아완화의료기금(꿈틀꽃씨)

일시납(원) 매월(원)

총금액(원) 약정 후 분납 매월(원)

기타 자유납(원)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신한 367-03-023079 예금주 : 어린이병원후원회

자동이체(CMS)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 _____

은행명 _____ 이체희망일 5 / 15 / 25 생년월일 타인계좌이체 시 기재

본인은 위 사항과 같이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후원회 사업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귀회의 회원이 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1)기부금 영수증 발급 (2)기부자 예우프로그램 시행 (3)기부자와의 의사소통 (4)기금관리 및 홍보물 발송(외부DM 발송업체위탁)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항목

(1)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2)선택항목 :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주민등록번호, 후원계좌정보,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관계, 희망사용처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소득세법 제 160조의3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기부 및 이체 종료일(해지일)후 5년 보유합니다. 후원회는 기부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기부약정정보를 보관하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실 경우 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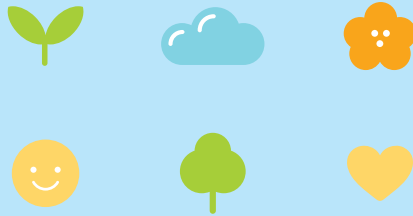
4.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기부약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일부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 : 기부 내역의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꿈틀꽃씨



www.dreamseeds.co.kr

SNUH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WEB www.dreamseeds.co.kr **ADD**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층 꿈틀꽃씨 센터
TEL 02-2072-3523 | 02-2072-1756 | 02-2072-4267 **FAX** 02-2072-3533 **E-MAIL** children.dreamseeds@gmail.com